



즐거워라

6

주체112(2023)
루게 제406호 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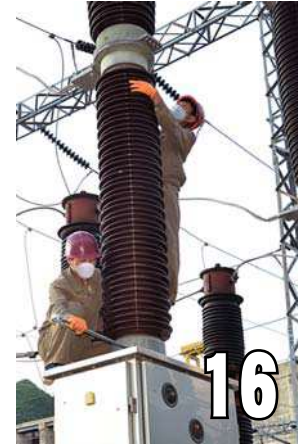


표지: 즐거운 놀이시간

중구역 오탄유치원의 어린이들이 놀이시간을 즐겁게 보내고있다.

알락달락 자그마한 공들과 갖가지 장난감들을 가지고 노는 어린이들의 얼굴마다에는 행복감이 한껏 어려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2 || 후대사랑의 힘으로 전진하는 조국

연 단

8 || 온 나라 천만자식의 학부형이 되시어

9 || 한 소년단원의 일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린 선물

11 || 자기꽃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12 || 합작은 불가능한가?

14 ||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를 이룩하시어

15 || 중시되고있는 생태환경보호사업

16 || 설비마다 만가동, 만부하를 걸어

18 || 더 좋게, 더 많이

20 || 비결은 어디에

좌담회

22 || 인민성으로 일관된 공화국의 시책

24 || 미래의 축구선수들로 자란다

28 || 재간둥이들이 자라나는 곳

30 || 근로의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32 || 《생활에서처럼 말하라, 생활에 진실하게 발을 붙이라》

34 || 산물고기료리로 소문난 식당

38 || 민족적색채가 짙은 다양한 공예품들을

41 || 《만년》약품들의 효능을 높여

42 || 재일조선인민족교육말살을 노린 일본반동들의 만고죄악의 력사는 절대로 부정할수 없다

44 || 숭고한 리념이 안아올린 기념비적창조물

고향소식

46 || 새 거리에 넘치는 기쁨

조국의 품에 안겨

50 || 초석

민족의 향기

52 || 동심을 불러오는 즐넘기놀이

우리 나라 력사에 존재한 국가들

54 || 발해

조선의 옛 화가들의 이야기를 펼치고

56 || 금니화로 화단을 빛내인 리징

59 || 조선의 단청 비단무늬

조선의 명산

60 || 묘향산

후대사랑의 힘으로 전진하는 조국

오늘 조국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방역상황과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반공화국책동, 이상기후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겹쳐드는 속에서도 순간의 멈춤도 없이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나가고있다.

조국이 과연 무슨 힘으로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자기 발전의 궤도를 따라 용융히 나아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답을 지난해말 당과 국가의 특별한 관심과 온 나라 인민의 축복속에 조국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에서 먼저 찾을수 있을것이다.

대회에는 학생소년들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세상에서 제일 훌륭히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열화같은 후대사랑이 응축되어있었다.

후대들의 밝은 웃음으로 한해를 긍지높이 총화하고 후대들을 위한 사업으로 새해의 서막을 열어나가고있는 세상에 유일한 나라가 바로 우리 조국이 아니던가.

그뿐이 아니다. 당의 육아정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주요의정의 하나로 토의되였던 사실도 상기할수 있다.

회의에서는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젓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정책으로 수립하였다.

지난 수십년세월 조국에서는 탁아소, 유치원, 학교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매일 영양가높고 신선한 콩제품을 공급해주었다.

하건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은 당과 국가의 최종대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라고,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방식, 발전방식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며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젓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중요한 정책으로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그후 공화국정부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 및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젓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정상공급하며 가장 훌륭한 양육조건을 보장하도록 하는것을 법적으로 고착시켰다.

조선로동당의 따사로운 품에서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활짝 꽃피우며 위대한 우리 조국, 사회주의 조선의 역군으로 씩씩하게 자라나는 학생소년들의 명랑한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온 나라에 끝없이 차넘치는 속에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가 주제111(2022)년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국가적부담으로 새로운 형태의 질 좋은 교복과 가방이 생산공급되었다.

인류발전사를 더듬어보면 어린이들을 키우는 문제는 매 어머니들과 한가정에 국한된 것으로 여기어왔으며 그것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로 되어왔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은 전국의 어린이들을 국가가 모두 맡아 잘 먹이고 잘 키우는것을 정책화, 법화하여 강력히 실시하고있으며 더우기 조국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어린이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있다. 후대들을 위하여 국가가 당하는 손실은 손실이 아니며 어린이들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이 지출될수록 조국의 미래가 밝아진다는것이 바로 조선로동당의 드팀없는 정치철학이고 불변의 신념이다.

진정한 강국은 오늘만이 아니라 래일을 귀중히 여기는 나라, 후대육성문제를 최종대사로 내세우고 빛나게 해결해나가는 나라라고 할수 있다.

돌이켜보면 어린이들에 대한 조국의 사랑은 비단 어제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된 때로부터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앞에 후대교육사업을

놓고 언제나 선차적힘을 돌려왔다.

해방후 나라형편이 것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아이들의 연필문제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첫 회의의의정으로 토의되고 생사를 판가름하는 준엄한 전화의 나날에도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충분히 보장해줄데 대한 문제, 전재고아들을 잘 키우며 육아원과 애육원에 대한 투자를 늘여 그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할데 대한 문제가 중요회의들에서 토의되였다.

그후에도 국가에서는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고 제일 좋은 자리마다에 아이들의 궁전과 야영소, 탁아소, 유치원, 학교를 세워주었으며 철따라 새 교복을 안겨주고 학용품과 영양식품들을 정상적으로 공급해주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자주 우리가 곱쌓이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혁명을 하고있는것도 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이고 그들이 마음껏 뛰놀아야 온 나라에 행복의 웃음소리, 사회주의웃음소리가 더 높아지게 된다고 말씀하군 하시였다.

아이들의 웃음은 국가의 활력을 더해준다. 그 웃음을 꽃피우고 지켜주기 위해 그이께서

는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였다.

비오는 날 진창길을 앞장에서 걸으시며 새로 일떠서는 아동병원건설과 관련한 가르치심도 주시고 손수 수첩에 계산까지 해가시며 원아들에게 하루에 먹일 물고기량까지 계산해보신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은 오늘도 인민의 가슴속에 새겨져있다.

그이께서는 많은 아이들이 자기들의 꿈과 희망을 아뢰인 편지들을 일일이 보여주시고 친필도 보내주시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신다.

다심하신 그 손길이 있어 전국도처에 어린이보육교양기지들이 훌륭히 일떠서고 평양의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곳곳의 야영소들이 면모를 일신하였으며 아이들이 즐겨 찾는 물놀이장과 유희장, 공원을 비롯한 문화정서생활기지도 새로 일떠서거나 개건되였다.

교육사업에 대한 전사회적인 지원열기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뜻밖의 자연재해를 입은 피해지역의 학생들이 야영소로 떠나가는 화폭도 후대사랑을 꽃피워가는 조국땅에서만 펼쳐질수 있는것이다.

이렇게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해



전국의 학령전어린이들에게 《해바라기》상표를 단 연필과 지우개, 크레용, 수채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학용품들이 무상으로 공급되고있다.



나가고있는 오늘 나라의 모든 정책과 활동은 후
대들에 대한 사랑과 잇닿아있다.

조국에서 미증유의 엄혹한 시련속에서 경제
발전을 위한 과감한 조치들을 취하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들을 완강히 진척시켜나가고있는것도,
국가방위력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고 그 누구도
넘볼수 없는 절대적힘을 비축하고있는것도 결국
은 후대들이 행복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 랑랑한 글소리가 넘쳐나
는 집은 미래가 창창한 법이다.

후대들에 대한 불같은 사랑의 힘으로 만남을
뚫고나가는 조국의 힘찬 진군은 그 무엇으로써
도 가로막을수 없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조선중앙통신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든
든하게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
차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
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
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은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최중대정책
이고 최고의 숙원이다.

아이들의 성장발육에서 제일
중요한 연령기인 탁아소, 유치
원시기에 국가적부담으로 전국
의 어린이들에게 첫제품을 비롯
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당
의 정책으로 수립하였다.



나라의 곳곳에 훌륭히 일떠선 청소년과외교양기지들과 공원들, 야영소들에서 울리는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에는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어려있다. 주체108(2019)년 촬영



온 나라 천만자식의 학부형이 되시여



몸에 꼭 맞는 새 교복을 입고 좋아라 웃고 떠들며 학교로 가는 학생들과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탁아소와 유치원으로 오가는 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생각이 깊어진다.

그들이 자기가 메고있는 책가방과 입고있는 교복, 리용하고 있는 학용품들, 매일 마시는 젖제품에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는지 알고나 있을가 하는 생각이 갈마들어서이다.

아이들의 고운 꿈과 아름다운 희망을 활짝 꽃피워주기 위해 나라에서는 최근시기 많은 조치들을 취하였다.

11년전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 무교육의 실시에 관한 법령이 채택되었고 주체110(2021)년 6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는 육아정책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육아법도 제정되었다.

사실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는 속에서 학제를 1년 더 늘여 새로운 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아이들에게 가장 훌륭한 양육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담보를 마련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라에 자금이 남아돌아가서도 아니었다. 이것은 후대들에게 세상에 부림없는 행복을 안겨주는것을 자신의 본분으로, 필생의 사명으로 간주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후대관이 안아온 결실인것이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한 책임일군을 부르시여 학생교복생산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교복과 가방, 신발을 만들어 공급한다는것이 간단치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무조건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새 교복과 가방, 신발을 만들어 공급하는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간곡히 이르시었다.

그이께서는 후대들을 위한 사업에서는 손이 떨려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조국의 미래

인 학생들에게만은 새 교복과 가방, 신발을 무조건 공급해 주어야 한다고 또다시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그이의 열화같은 진정에 의해 주체110(2021)년 12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는 아이들에게 교복을 해입히는것은 조건이 좋으면 하고 어려우면 못해도 무방한 사업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우리당의 정책,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으로 되게 하였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어린이들도 많지만 이 세상 그 어디에 중요당회의에서 국가적부담으로 온 나라의 학생들에게 교복과 학용품을 보장해줄데 대한 문제가 토의된 레를 알지 못한다.

오랜 기간 교육부에서 일한 일군으로서, 또 자식을 가진 아버지로서 가슴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다.

그이께서는 지난해 9월에는 학생들에게 새 교복을 만들어입힌 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매 학생의 교복을 성의있게 잘 만들어입힐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었다.

하여 지난 2월말부터 3월초까지 학생교복생산에서 커다란 전환을 안아올수 있게 하는 몸체

한 소년단원의 일기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6개월이 흘렀지만 대회에 참가하였던 소년단대표들의 마음속에는 그 나날들이 잊지 못할 추억으로 깊이 간직되어있다.

아래에 대회에 참가하였던 평천구역 성안소학교 소년단위원장 김권용의 일기의 일부를 소개한다.

주체111(2022)년 10월 27일

믿음

오늘 우리 학교소년단조직에서는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에 참가할 대표자추천모임을 가지었다.

선생님은 대회에 보내는 대표자는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남다른 모범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추천하면 좋은가고 물어보았다.

처음에 너동무들속에서 《김권용동무!》 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더니 남동무들도 저저마다 내 이름을 불렀다.

룡일동무는 학년마다 최우등을 하고 5개의 문학을 받았으며 뒤떨어진 동무들에게 학습방조

를 주고 좋은 일도 찾아하는 권용동무가 응당 소년단대표로 될수 있다고 큰소리로 이야기하는것이였다.

나를 내세워주는 정다운 동무들의 눈빛을 마주하고보니 마음이 찌르르해왔다.

솔직히 대회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가하고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과연 내가 대표로 될수 있을가 하는 생각이 갈마들었던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괜한 걱정이였으며 나는 동무들의 믿음을 받고있었다.

믿음, 그것은 하루이틀에 생겨나는것이 아니며 저절로 생겨나는것도 아니다.

동무들의 그 믿음에 꼭 보답하겠다.

기지도서가 전국각지에 시달되었으며 교원들도 부모된 심정에서 학생들의 신체적특성에 맞게 몸을 정확히 재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어디 그뿐인가.

소년단원들의 대회가 국가의 중요행사로 되고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어린이들을 위한 궁전과 야영소, 육아원, 애육원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섰다.

《소나무》책가방, 《민들

레》학습장, 《해바라기》학용품이라는 부름은 아이들의 친근한 길동무처럼 불리워지고있다.

매일매일 공급되는 젖제품과 영양식품을 마시고 먹으며 어린이들은 보다 더 실하게 자라나고있으며 그들의 모습은 어린이성장기록부에 그대로 반영되고있다.

조국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끝없는 사랑과 정을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다심한

손길, 뜨거운 은정속에 이 땅에서 아이들을 위한 재부가 끝없이 늘어나고 후대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차넘치고있다.

하기에 인민들은 온 나라 전체 천만자식의 학부형이시고 한없이 자애로운 아버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우리러 고마움의 인사, 감사의 큰절을 삼가 드리고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리창식

주체111(2022)년 12월 27일

기쁨

아직도 나의 눈앞에는 대회장에서 나의 토론을 듣고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보내던 전국의 소년단 대표들의 모습이 생생히 떠오른다.

물론 대회에서 토론을 한 동무들중에는 평양 애육원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의 품에 안겨 뽀뽀를 받아안았던 평양중등학교 소년단 위원장 김진성동무를 비롯하여 온 나라에 이름이 자자한 동무들이 많았다.

난 별로 이름도 나지 않았는데 대표동무들은 나에게 박수갈채를 아끼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나에게서 지나온 나날들이 돌이켜졌다.

나는 유치원시절부터 사물현상을 보면 그에 대한 시짓기를 좋아하였다.

유치원선생님과 소학교선생님들은 그러는 내가 대견해 동무들앞에 내세워주었고 창작의 나래를 활짝 펼치도록 적극 도와주었다.

하여 나는 《우리 교실》문학상, 아동문학상을 비롯한 5개의 문학상을 받게 되었다.

동무들은 내가 최우등을 하고 문학상을 받을 때마다 축하의 박수와 함께 부러움의 눈길을 보내었다.

그러는 동무들의 모습을 대하는 순간 나 혼자 앞서나가는것보다 다같이 최우등생이 되고 꼬마시인이 되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과 소년단지지도원선생님을 찾아가 동무들의 학습방조와 글쓰기능력을 높이는것을 고정분공으로 줄것을 제기하였다.

내 공부도 하면서 동무들의 학습을 방조해주고 글쓰기능력도 키워주자니 험치 않았다.

나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달라붙어 20여명의 동무들이 문학상을 받도록 도와주었다.

이렇게 되어 지난 2월 광명성절에는 동무들과 함께 글작품집 《제일 큰 명절》을 창작하여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올렸다.

동무들도 선생님들도 모두가 기뻐하였다.

기쁨, 그것은 혼자서 맛보는것보다 동무들과 함께 나눌 때 배로 커진다.

주체112(2023)년 1월 1일

아버지

새해와 더불어 나는 12살이 되었다.

이날이때까지 나는 한번도 집을 떠나 양력설을 쇠본적이 없다.

그러나 올해 양력설은 집을 떠나 전국의 소년단대표들과 함께 보내게 되었다.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몹시도 그리웠다.

특히는 출장이 많아 집에 자주 들어오지 못하는 아버지가 제일 그리웠다.

그러다나니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한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나의 마음속생각을 다 헤아려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해에 가서야 할 곳, 찾으셔야 할 곳이 많으시였지만 우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기 위해 촬영장에 나오시었다.

환호를 울리는 우리들에게 답례해주시며 정겨운 미소를 지으시는 아버지원수님을 뵈오니 눈물이 절로 솟구쳐올랐다.

나는 《아버지!》 하고 소리쳐불렀다.

아버지!

정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나의 아버지, 아니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아버지이시었다.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몸에 꼭 맞게 교복을 해입히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고 가방과 학용품을 세상 으뜸, 최고의 수준으로 마련해주신 우리의 아버지 경애하는 원수님!

여러 차례 소년단원들의 대회를 소집해주시고 사랑을 주고 정을 주시는 아버지원수님의 품은 정말 제일 위대하고 따사로운 아버지의 품이다.

뜻깊은 새해아침 아버지원수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우리들은 저녁에 원수님의 사랑이 담긴 손목시계를 받아안았다.

시계의 초침소리는 나를 보고 앞으로 시간을 아껴가며 공부를 더 잘해 나라의 훌륭한 역군이 되라고 속삭여주는것만 같았다.

* * *

김권웅은 그후 초급중학교학생이 되었다.

자기꽃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 연변대학대표단이 드린 선물 주체104(2015)년 10월 10일

합작은 불가능한가?

(전호에서 계속)

내가 태어난지 한달밖에 안되는 부대를 이끌고 천리밖에 있는 량세봉을 찾아온것도 이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회담이 결렬된 그날 통화시내에 있는 우리의 조직원이 독립군이 반일인민유격대의 무장을 해제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있다는 정보를 보내주었다.

량사령이 그런 음모를 꾸민다는것은 도저히 믿을수 없는 일이었지만 우리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통화에서 벼락같이 철수하였다. 그렇게 되어 류본초선생과도 갈라졌다.

반일합작의 절박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독립군과의 충돌을 피해 통화를 떠난 반일인민유격대의 대오에는 음침한 기분이 떠돌고있었다. 차광수는 그 대오의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로정도가 그려진 목적을 들여다보며 덩덤히 발걸음을 옮기였다.

《광수동무, 오늘은 왜 그렇게 성난 사람처럼 뿌루퉁해있소?》

나는 그의 기분을 짐작하고 일부러 웃으면서 말을 걸었다.

차광수는 때를 만났다는듯이 주머니에 목적을 집어넣으며 불부은 소리를 했다.

《그럼 이런 판국에 웃어야 하겠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울화가 치밀어 못견디겠소. 피를 흘리며 천리를 달려온 로고가 허사로 돌아가지 않았소.》

《왜 참모장동무는 독립군과의 담판을 실패작

으로만 보려고 하오?》

《그럼 실패작이 아니고 성공작이란 말이요? 어쨌든 량사령은 합작이 아니라 무장해제음모를 꾸미지 않았소.》

《참모장동무는 상층의 표정만 보았지 하층의 얼굴은 보지 못했구만. 독립군대원들이 우리 유격대를 보고 얼마나 감탄하고 부러워하였소. 나는 무장해제설보다 그걸 더 중시하고싶단 말이요.》

중요한것은 상층의 표정이 아니라 하층의 태도요. 나는 거기서 합작의 장래를 보고있소.》

이렇게 말하는 내자신에게도 합작의 장래에 대한 확고한 승산이 있는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예감을 말했을뿐이고 념원을 표시했을뿐이다.

나도 사실 마음속으로는 고민하고있었다. 그때 나를 지배하고있던 고민이란 국적이 서로 다른 량사령과 당취오와의 합작도 성사되고 우리와 우사령과의 합작도 성사되는데 동족끼리인 반일인민유격대와 독립군과의 합작은 왜 그토록 이루어지기 힘든가, 과연 량세봉사령과의 합작은 불가능한가 하는것이였다.

독립군이 그때 진실로 무장해제음모를 꾸렸는가 안꾸였는가 하는것은 오래동안 미지수로 남아있었다. 나는 그 정보가 조직원들이 수집한것이기에 틀림없을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근거없는 정보이기를 바랬다. 설사 그것이 과학성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나는 량사령을 탓하고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인간의 사상이란 한계가 있는 법이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체험이 소모되는 법이다. 그

렇기때문에 나는 그때 통화를 떠나면서도 독립군과의 합작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를 서두르지 않았다.

오히려 량사령이 언제인가는 꼭 우리의 진심을 리해하고 합작의 대문에 들어설 때가 있을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였다. 애국은 련공의 바다에로 가는 강물이나 시내물과 같은것이다.

여러해가 지난 후 부대를 이끌고 조선인민혁명군에 병변하여온 독립군의 사령 최윤구는 나와 함께 1932년의 여름을 감회깊이 회고하였다. 최사령의 말에 의하면 그때 반일인민유격대의 무장을 해제할 음모를 꾸민것은 량사령이 아니라 량사령의 수하에 있는 참모였다는것이였다. 원래 량사령은 반일인민유격대와의 합작을 성사시키려고 하였는데 그 참모가 막후에서 반공마이크를 들고 우리를 쏘았으며 나중에는 자기의 심복부하들과 함께 우리 부대의 무장을 해제할 모의까지 하였다는것이였다.

최윤구의 그 말이 량세봉사령에 대한 우리의 의혹을 완전히 풀어주었다. 량사령이 우리와의 거래가 결렬된것을 두고두고 가슴아프게 생각하였으며 그가 우리를 반대하는 무장해제음모에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나는 안도감을 느끼였다. 그가 비록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애국앞에서 결백하고 의리앞에서 한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인간임을 다시한번 확증할수 있게 된것이 무엇보다도 나를 기쁘게 하였다. 자기가 훌륭하다고 본 인간이 수십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도 계속 훌륭한 인간으로 남아있으며 그 인간에 대한 깨끗한 인상에 때가 끼지 않고 얼룩이 지지

않을 때 그보다 더 즐겁고 흐뭇한 일은 없다.

량사령의 과실은 적의 간계를 보지 못한것이였다. 그는 대바르고 강직한 사람이였지만 자기의 턱밑에서 참모가 우리와의 합작을 류산시키려고 작간질을 하는것도 몰랐다. 그리고 그자가 공산주의자들을 악랄하게 혈뜰을 때에도 그의 본심을 꿰뚫어보지 못하였다. 량사령이 억울하게 최후를 마친것도 적의 간계에 속아넘어갔기때문이였다.

량세봉사령이 반공으로부터 련공으로 방향전환을 한것은 림종전야였다. 그 당시 독립군내부는 매우 복잡하였다. 밀정들과 그에 매수된 앞잡이들의 해독행위가 우심해지는가 하면 부대를 떠나는 락오자들과 탈주자들이 속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자들과의 합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울려나왔다.

량사령도 공산주의자들을 더는 무시할수 없게 되였다. 그는 조중 두 나라 혁명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주세력으로 등장하여 천하를 쥐락펴락하는 새로운 격동기가 도래하였다는것을 인정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자기의 립장을 랭철하게 검토하였으며 그 과정에 련공까지 결심하게 되였다.

공산주의에 대한 물리해와 본의아닌 적대감에 포로되어 우리와의 합작마저 결심하지 못했던 량사령이 련공으로 방향전환을 한것은 그자신의 생애는 물론, 독립군의 투쟁력사에서 하나의 특기할 사변이였다. 그가 반공을 배격하고 련공의 길을 택하였다는것은 양정우와의 공동행동을 한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그는 우리와도 합작할 생각을 가지고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를 이룩하시여

주체53(1964)년 6월 19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뜻깊은 날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적인 이날로부터 당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조선로동당이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당의 불패성의 담보는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 일심단결을 이룩하고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데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초기부터 이를 통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이에 기초하여 그이께서는 당과 대중의 혈연적연계를 강화하고 당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다지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특히 전당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그이의 사색은 늘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으로 일관되시였다.

이런분이시였기에 그이께서는 생사기로에 놓인 한 처녀와 외진 산골마을의 세쌍둥이산모를 위해 직승기를 띄우도록 하시였다.

그이의 품은 언제나 젖은 손이 마를새없이, 근심이 떠날새없이 자식들을 보살피는 어머니의 품이었으며 인민들 누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라 스스로없이 부르며 따르게 하였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그이의 모든 사색과 실천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민이 놓여있었다. 조국과 인민의 안녕과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그이의 건강을 넘려하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인민들이 좋아하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교시하군 하시였다.

진정 인민을 위하시는 그이의 사랑은 강렬하였다. 인민의 행복을 최대의 기쁨으로, 락으로 여기시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을 위해 자신을 초월처럼 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새로 일떠선 봉사시설들, 새로 개발한 제품들을 대하실 때마다 그이의 첫 물으심은 인민들이 좋아하는가였다.

하기에 조국인민은 혁명앞에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당에서 새로운 구상을 제시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성기를 열어놓기 위한 사업들이 전개될 때마다 무궁무진한 힘을 발동하여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켰다.

조선로동당을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당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그이께서는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전당이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며 인민에게 의거하도록 령도하고 계신다.

지난시기에도 그러하였지만 최근년간 당회의들에서 중요하게 토의되는 문제들이 모두 인민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오늘 조국의 곳곳에 인민의 행복을 위한 새 거리들과 새 마을들, 대규모온실농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고있는 현실은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도 그리하지만 래일도 빛나게 계승될것이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중시되고있는 생태환경보호사업

- 세계환경의 날을 맞으며 국토환경보호성 처장 김광호와 본사기자의 대담 -

6월 5일은 세계환경의 날이다.

주체61(1972)년 제27차 유엔총회에서는 환경보호를 인류공동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하고 이 분야에서 국제적협조를 이룩하며 매해 6월 5일을 세계환경의 날로 기념할것을 결정하였다.

이때로부터 국제사회는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제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전문기구가 설립되고 여러 협약들이 채택되었으며 일부 나라들에서는 6월 5일부터 1주일 동안을 환경주간으로 정하고 환경보호와 관련한 행사들을 진행하고있다.

얼마전 본사기자는 세계환경의 날을 맞으며 국토환경보호성 처장 김광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생태환경은 인민들의 삶이 뿌리내리고 자자손손 대를 이어 살아가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이며 이를 보호하는 사업은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처장: 그렇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정부의 정책에 따라 환경보호를 위한 사업이 전국각적인 사업으로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주체110(2021)년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를 비롯한 여러 당중앙전원회의들에서 국



토관리와 생태환경보호사업과 관련된 문제들이 중요하게 토의되고 과업들이 명시되었다.

우리 국토환경보호성에서는 2년전에 환경질기준과 환경오염물질배출기준을 비롯하여 여러 평가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환경보호기준을 과학적으로 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환경조사와 보호사업을 진행해나가고있다.

기자: 올해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있는지 알고싶다.

처장: 환경영향평가법, 폐기폐설물취급법을 비롯한 환경보호와 관련한 여러 법과 그 시행규정, 세칙들이 전면개정된데 기초하여 그 실행을 위한 사업들을 내밀고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생산 및 건설과 관련한 계획작성에서부터 환경문제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보통강생태환경개선종합계획을 단계별로 세우고 추진하고있다.

또한 아류산가스측정기와 부

유먼지측정기를 비롯한 환경자동측정설비들을 갱신하고있으며 생물권보호구를 비롯하여 주요보호구들을 다시 조사하고 그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전국적범위에서 나무심기와 강하천정리 등이 활발히 벌어지고있으며 마을과 일터를 문화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도 꾸준히 진행하고있다.

기자: 이 사업에 대한 인민들의 열의가 매우 높다고 본다.

처장: 지금 어느 지역, 어느 부문, 어느 단위로 할것없이 환경보호를 자기자신을 위한 사업으로 여기고 자기 마을, 자기 일터를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평양시에서는 원림조성계획을 세우고 공원이나 유원지, 정원들에 록지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거리형성상특성에 맞게 가로수와 록지, 꽃밭을 조성하였다. 또한 전망계획에 따라 수도의 수림화, 원림화사업도 진척시키고있다.

뿐만아니라 각 지방들에서도 자연지리적조건과 기후풍토를 고려하면서 원림록화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전망적인 계획을 단계별로, 과학적으로 세우고 진행되는 환경보호사업에 의하여 생활조건과 환경이 더욱 개선되어가고있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 * *

설비마다 만가동, 만부하를 걸어

자강도에는 물량이 많고 물살이 빠르며 좁은 목과 굴곡부가 발달된 강과 하천이 많아 수력발전소들도 적지 않다.

희천시에만도 희천발전소, 희천2호발전소와 희천3호발전소가 건설되어 적지 않은 전력을 생산하고있다.

희천3호발전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올해 1.4분기 전력생산계획을 수행한데 이어 2.4분기 전력생산계획을 초과완수하

기 위한 사업에 총매진하고있다. 일군들은 세부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경제조직사업과 지휘를 따라세우고있다.

발전소에서는 안정적인 전력생산을 위해 충분한 수위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종업원들은 언제구조물관리체계의 요구에 맞게 구조물관리와 보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한방울의 물도 허실하지 않

게 하고있다. 특히 그들은 계절적조건에 맞게 더 많은 물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물관리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고있다.

발전소에서는 높은 효율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내밀고있다.

종업원들은 기술기능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발전설비들에 대한 점검보수를 간지게 하고 운전조작을 표준조작법의 요구

대로 하고있다. 그리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려 가치있는 창의고안들을 도입하고있다.

최근에만도 이곳 기술자들과 종업원들은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 합리적인 기술혁신안을 내놓아 발전기와 차단기대보수기일을 종전에 비해 훨씬 앞당겼는가 하면 발전기수차날개각도를 과학적으로 조절하여 효율을 보다 높였다.

그런가 하면 국가과학원 연구사들의 방조속에 발전설비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기구를 새롭게 제작하여 전력증산에 이바지하였다.

글 본사기자 강은순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희천3호발전소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을 앞세워 설비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있다.



더 좋게, 더 많이

- 선교편직공장을 찾아서 -

선교편직공장에서 생산되는 《갈매기》상표를 단 제품들이 평양시안의 백화점들과 상점들에서 판매되고있다.

《갈매기》상표를 단 운동복, 겹옷, 속옷, 수영복, 셔츠 등은 형태와 색깔이 다양하고 질이

좋은것으로 하여 인민들속에서 수요가 높다.

공장에서는 옷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높아지고있는 조건에서 그들의 기호와 시대적미감에 맞는 다종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있다.

다양한 형태의 옷도안과 설계를 생산에 도입하는것과 함께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종업원들 누구나 기술학습의 주인이 되고있다.

최근후이면 종업원들은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새로운 옷도안들을 착상하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한 학습을 꾸준히 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공장에서는 제품의 질을 높이고 다양화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련관단위기술자들과 지혜를 합쳐 소형고온고압염색기를 제작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창의고안으로 염색의 질적수준을 높이고있다.

그리고 모든 가공공정들에서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매 편직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재단직장의 기대공들은 공장도안실과 기술준비실과의 련계밑에 새로운 형태의 편직물에 대한 재단을 과학기술적으로, 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그들만이 아니다.

공장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제품들에 정성을 담아가는 기대공들의 마음을 엿볼수 있다. 자식들에게 더 좋은 옷을 해입히려는 어머니들과 같은 그 마음이 공장설비들의 기술갱신과 생산을 추동하고있는것이다.



선교편직공장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을 일으켜 생산을 정상화하고있다.



선교편직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의 일부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흥광남

비결은 어디에

- 평양곡산공장에서 -



평양곡산공장에서 국내외 원료와 기술에 의거하여 생산한 제품들의 일부

옥당과 포도당, 물엿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탕과 과자를 비롯한 당과류들을 생산하고있는 평양곡산공장에서 최근에 종합적인 낱알편퇴기생산공정을 새로 확립하였다.

공장에서 새 공정을 꾸릴것을 목표로 한것은 몇해전부터였다.

현재 생산하고있는 제품들에 만족해서는 언제가도 세계적인 식료공업발전추세에 따라설수 없으며 인민들이 선호하고 반기는 당과류들을 내놓을수 없다는것을 절감한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분발해나섰다.

이렇게 되어 공장에는 기술자, 기능공들로 기술혁신조가 조직되고 새 공정개척을 위한 연구가 시작되였다. 종합적인 생산공정을 꾸리는데서 제일 어려운것은 낱알전처리공정이였다.

이 공정을 확립하자면 각종 낱알원료들의 타개기, 눈, 껍질분리 등 여러가지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해야 하였다.

기술혁신조 성원들은 낱알전처리공정에 대한 세계적추세를 깊이 연구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하면서 공장과 국내의 실정에 맞게 설계를 완성해나갔다.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기발한 창의고안, 기술혁신안들을 내놓아 공정수립에 적극 기여하였다. 그런가 하면 공무직장에서는 설계의 요구

대로 설비제작을 제기일에 끝내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새로운 생산공정확립을 위한 일군들과 기술자, 종업원들의 열의속에 낱알전처리공정이 수립되게 되였으며 이어 보리추출물생산공정을 비롯한 다른 공정들도 련이어 완성되게 되였다.

이 과정에 공장에서는 원료정량공급기, 유락기, 자동포장기를 비롯하여 35종의 40여대의 설비들을 자체로 제작하였다.

새로운 낱알편퇴기생산공정을 꾸려놓은 결과 코코아밀편퇴기, 보리편퇴기, 코코아밀알퇴기 등 6종에 24가지의 새 제품들이 생산되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공장에서는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적극 내밀어 제품의 가지수도 늘이고 질도 높여나가고있다.

공장의 기사장 김세원은 《공장에서 거둔 성과의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다. 지난 시기 과학기술보급사업을 꾸준히 벌려 종업원들의 지적능력을 높여준데 있으며 그 과정에 자체의 과학기술력량, 인재력량을 강화한데 있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영은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공장에서 제품의 질제고와 새 제품개발에 모를 박고 대중의 지혜를 합쳐가고있다.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은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인민성으로 일관된 공화국의 시책

기자: 최근년간 조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기 오염방지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경영법을 비롯하여 인민들에게 아름답고 문명한 문화생활조건과 환경을 보장해줄 데 대한 법들이 새롭게 채택되거나 수정보충되고있다.

이 모든 법들에는 인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법규정들을 제정하기 위한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는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인민관이 슴배여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김철원: 우리 국가의 시책은 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며 그들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보장해주는것으로 일관되어있다.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의 생활은 물론 입고 쓰고 사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일하고 배우며 문화정서생활을 누리고 치료받는데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들을 그들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고있으며 발전시키고있다.

전반적무료교육제를 통해서도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있는 시책의 인민성을 잘 알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과 실험실습은 물론 과외활동, 답사와 견학, 야영생활을 위한 비용까지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교복, 교과서, 참고서, 학용품들을 공급하고있다. 학교교육뿐 아니라 사회교육, 일하면서 배우는 온갖 형태의 교육도 모두 국가의 부담으로 진행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전반적무료교육제도는 그 대상과 범위가 매우 넓고 포괄적이며 전면성을 띠고있다.

우리 국가가 실시하고있는 시책의 우월성은 보건부문에서도 그 생활력이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지난해에 들이닥친 최대비상방역위기를 90여일만에 성과적으로 안정관리하게 된데는 의사담담구역제를 비롯한 예방의학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보건시책들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인민적시책들 가운데는 어린이들로부터 노인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돌려지는 시책도 있다.

기자: 끊임없이 보충되고있는 어린이보육교양제도에는 국가가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사회주의의 본태가 집약적으로 반영되어있다고 본다. 지난해 2월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지않는가.

김철원: 지난해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에는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방식, 발전방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후대관이 깃들어있다.

이에 대해서는 력사연구소 연구사 조희승선생이 하실 이야기가 많다고 본다.

조희승: 내가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낸 일본땅에서는 어린이들이 가정과 사회의 부담으로, 골치거리로 되고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돈이 없어 제가 낳은 자식을 버리고 유치원들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학대행위가 성행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는것이 레상사이다. 그뿐이 아니다. 아이를 낳으면 직장에서 쫓겨나 생계를 유지할수 없어 아이를 포기하는 녀성들도 수다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젓제품보장사업이 최우선, 절대시되고있으며 어린이들이 집에서 부모들과 함께 지내는 명절날, 휴식일까지도 국가에서는 의무적으로 젓제품을 공급하고있다.

기자: 경공업부문에서 제품생산을 질량적으로 높여 필수소비품, 기초식품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것은 국가의 인민적시책이 인민들에게 가닿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다.

빈명철: 그렇다. 경공업부문에서 인민소비품들의 질을 제고하고 품종을 늘이며 원가를 낮추는것은 우리 당이 내세운 5개년 계획의 중요과업이다.

지난해 것처럼 극악한 조건과 불리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경공업부문의 모든 근로자들은 생산활동을 힘있게 벌려 새 학년도를 맞으며 전국의 모든 소학교, 초급, 고급중학교, 대학입학생들에게 새 교복과 책가방, 신발, 학용품을 일식으로 공급하였다.

특히 지난해 평양시와 각 도들에서 끊임없이 진행된 각이한 경공업제품전시회들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사이, 생산자들사이의 의견과 경험교환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지금 경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필수품, 자기 단위를 상징하고 대외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기자: 집문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사회적문제의 하나이다.

경루동의 새집을 받은 조희승선생의 이야기를 듣고싶다.

조희승: 올해 73살인 내가 한 일이 있다면 한생 조국의 력사를 연구하면서 고구려문제를 해명하는데 기여한것뿐이다. 이것은 력사학자로서 응당 하여야 할 일이다.

이런 나에게 조국에서는 수도에서 제일 좋은 집을 안겨주었다. 정말 꿈같은 일이다. 이 소식을 일본에 있는 형제들이 알면 아마 놀랄것이다. 일본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들에서 국회의사당이 자리잡고있는 주변은 제일 좋은 자리로 되어 여기에는 행정기관들이 밀집되어있

고 권세있는 사람들만이 살고있다. 이런 곳의 집들은 그 값이 엄청나다. 그러나 내 조국에서는 명당자리에 호화주택을 건설하여 평범한 사람들에게 안겨주었다. 그뿐이 아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준공테이프를 끊으시고 호화주택을 받아안고 고마움의 인사를 거듭 올리는 새집의 주인들을 따듯이 축복해주시었다.

알고보니 나뿐이 아니라 경루동에 입사한 사람들모두가 한생을 자기 일터에서 성실히 일해온 평범한 근로자들과 과학자들이었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명당자리에 국가기관과 관리들이 살 집을 건설하기 위하여 민간인들의 집들을 헐어버린 레는 있었어도 인민들이 살 호화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였다는 레는 없었다. 오직 로동당시대에 와서야 내 조국에서는 가장 좋은 명당자리들에 인민들을 위한 거창한 창조물들이 일떠서게 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저택자리에 인민들의 살림집이 세워지는 동서고금에 없는 인민사랑의 력사가 창조된것이다. 나는 력사학자로서 인민사랑의 력사가 새겨지는 오늘의 현실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해 자기의 본분을 다할것이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 * *



김철원
평양시인민위원회 부국장



조희승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연구사
후보원사, 교수, 박사



빈명철
경공업성 부국장



김일봉
본사기자



훈련에 열중하고있는 평양국제축구학교의 학생들

미래의 축구선수 들로 자란다

- 평양국제축구학교를 찾아서 -

평양의 대동강 한복판에 위치한 풍치수려한 룡라도에는 평양국제축구학교가 자리잡고있다.

학교는 주체102(2013)년 5월에 개설되었다.

자연환경에 어울리게 아담하게 꾸러진 학교는 1만여㎡의 부지면적에 교사와 운동장, 기숙사, 문화후생시설들로 되어있다.

지난 10년간 학교에서는 전망성있는 축구선수 후보들을 적지 않게 키워냈다.

학교에서는 육체적준비만이 아니라 령활성과 성격, 투지 등 일련의 종합적인 지표를 중시하며 축구선수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는것과 함께 조기교육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있다.

이곳에서는 학생선발기준을 높이 세우고 해마다 전국적범위에서 축구를 지망하는 학생들로 여러 단계의 엄격한 시험을 거쳐 우수한 학생들을 입학, 편입시키고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지적능력 특히 창발성을 계발시키는것을 가장 중시하고있다.

부교장 한광일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첫째교식이 있는 며칠후 이곳을 찾으시여 학교를 학생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잘 꾸리고 관리운영하며 교육강령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교육교양사

업에 큰 힘을 넣어 우수한 축구선수들을 많이 키워낼데 대한 말씀을 하시였다고 하였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지능형, 창조형의 선수들로 키우는데 체육교수훈련의 중점을 두고있다. 즉 기계적인 공감각만이 아니라 수시로 변하는 경기정황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 전술의식능





수업시간을 통하여 다방면적인 지식을 쌓고있는 학생들



학생들은 지도교원들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높은 기술을 소유하기 위해 훈련을 거듭하고있다.



력을 제고하는데 모를 박고있다.

학생들의 나이에 맞는 과학적인 체육교수훈련 방법을 적용하는것은 물론 선진적인 훈련방법들도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이곳 교원, 연구사들은 축구학교 통합교육경영정보체계를 개발하여 교수훈련에 리용하고있으며 정보수단을 리용한 훈련 및 경기평가체계를 더욱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고있다.

학생들은 학년별에 따르는 여러 학과목들도 배우며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하고있다.

학생들에게 축구기술을 배워주고있는 실기분과의 지도교원들은 지난 기간 여러 체육단들에서 우수한 축구선수로 활약한 전적을 가지고있으며 감독경험이 있는 감독들로 꾸려져있다.

지난 기간 이곳 학생들은 다른 나라 청소년축구팀들과의 친선경기를 통하여 경기담과 경기의식을 높여나갔다.

학교를 졸업한 많은 학생들이 국내1부류축구팀들에 망라되어 맹활약을 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려 해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전술훈련을 진행하고있는 지도교원과 학생들



2016년 아시아축구련맹 14살미만 소녀지역별 선수권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학교가 받아안은 우승컵과 상장들의 일부



재간둥이들이 자라나는 곳

중구역 오탄유치원을 찾아서

평양시에 있는 중구역 오탄유치원은 뛰어난 어린이들을 많이 키워내는 유치원들중의 하나이다.

지난 시기 이 유치원에서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유치원어린이들의 예술종합공연과 예술축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재간둥이들을 많이 배출하였다.

그러한 성과속에는 어린이들이 지니고있는 재능의 싹을 옹계 가려낼뿐 아니라 그것을 훌륭히 꽃피워가는 원예사와도 같은 이곳 교양원들의 노력이 깃들어있다.

유치원에서는 관찰력과 표현능력, 예술적감각 등이 특별히 좋은 어린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돌리고 그에 맞게 교육을 주고있다.

교양원들은 어린이들의 인식능력과 동심에 맞게 과정을 세분화하여 음의 식별과 발음을 정확히 하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호흡과 소리의 일치, 호흡과 룰동의 일치를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형상에도 각별한 힘을 기울이고있다.

그들의 악기교육에서 특징적인것은 어린이들의 손놀림에 앞서 악기들의 소리색깔과 양상 등에 대한 표상과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어린이들이 자기가 다루는 악기에 대한 파악을 깊이하는데 도움을 주고있다.



민족악기를 배우고 있는 어린이들

뿐만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요술도 가르쳐주어 창조력과 함께 형상능력을 높여주고있다.

이곳 교양원들의 말에 의하면 재간둥이들을 키워내는데서 성악과 기악, 룰동을 결합하면 효과적이라는것이다.

유치원에서는 교수경연, 분과토론회 등을 자주 가지고 교양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잘해나가고있다.

발전하는 현실과 높아가는 어린이들의 지적능력에 맞게 교육방법을 부단히 개선해나가는것은 이곳 교양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교양원들의 노력에 의해 유치원에서는 최의연, 김원진, 김유진, 황주현을 비롯한 많은 꼬마재간둥이들이 자기의 재능을 활짝 꽃피우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주체111(2022)년 9월촬영

피아노를 배우고있는 어린이(왼쪽 위)
놀이시간을 즐겁게 보내고있는 어린이들(왼쪽 아래)
그림그리기를 배우고있는 어린이들(오른쪽 위)
주산련습을 하고있는 어린이들(오른쪽 아래)

근로의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조국에는 수십년세월 한직종에서 성실한 땀을 바쳐 가는 근로자들이 수없이 많다.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는 그들에게 나라에서는 공훈자동차운전사, 공훈란부, 공훈기계제작공, 공훈미용사, 공훈인쇄공 등의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었다.



공훈자동차운전사 류금철

송산케도전차사업소 운전사 류금철은 지난해 광명성절을 맞으며 공훈자동차운전사칭호를 받았다.

그날 그는 수십년전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내질던 때를 추억하였다. 어려서부터 운전사를 꿈꾸며 그려보던 그가 조향륜도 없는데다가 길이가 30여m나 되는 케도전차를 맡았을 때

실망이 앞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고정불변한 로선을 따라 달릴 때면 케도전차열을 지나치는 승용차들이 부러울 때도 있었다.

하지만 케도전차를 몰고 거리에 나서면 아직 애티를 벗지 못한 자기에게 용타고 정답게 인사를 보내주기도 하고 명절날이나 휴식일이면 정말 수고가 많다고 더 다정히 이야기해주곤 하는 손님들의 진정어린 모습을 보며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었다.

그 애착은 다름아닌 자기가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있다는 긍지였고 그로부터 가다듬게 되는 공민적 자각이었다. 하지만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사명을 다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언제인가 운행도중 손님들을 가득 태운채 그의 케도전차가 고장으로 멎어선적이 있었다.

손에 책을 든 대학생들과 안타깝게 시계를 들여다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어쩐지 자기를 꾸짖는것만 같았다. 그때 그는 자책감으로 얼굴을 들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 일이 있던 후 그는 자신에게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였다. 예비부속품과 공구를 충분히 준비해놓고 운행시작전과 주차후 자검자수에 누구보다 많은 품을 들였다.

일요일, 명절날이면 남먼저 운행길에 나섰고 고장난 차가 있으면 밤을 새워가며 수리를 도와주곤 하는것이 어느덧 그에게 습관처럼 굳어졌다. 근 30년에 달하는 그의 로동생활은 이렇게 흘러왔다.

오늘도 그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글발이 새겨진 1002호케도전차와 함께 만경대-평양역로선을 달리고 있다.



공훈미용사 김선희

평천구역편의봉사사업소 공훈미용사 김선희를 두고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안겨주는 너인이라고 말하고있다.

그만큼 그는 많은 사람들의 각이한 취미와 기호, 얼굴형에 꼭 맞는 머리형태를 가꾸어줄 줄 아는 숨씨있는 미용사이다.

물론 천성적인 재간을 가진데도 있지만 그는 무서운 노력가, 정열가였다.

처음 미용을 배울 때 교원이 손의 힘에 따라 미용술의 기법이 달라진다고 한 말 한마디를 듣고 그날로 실험을 해보며 그것을 터득한 그였다.

그는 천태만상인 사람들의 각이한 머리형태와 요구에 맞는 미용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많은 품을 들였다.

꾸준한 노력은 빛을 보게 되었다.

그는 날개형, 타원형, 과도형을 비롯하여 여러 머리형태들에 정통하게 되었으며 손님들에게 아름다움과 젊음을 안겨주게 되었다.

그는 손님들에 대한 미용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현재의 머리형태가 손님의 얼굴형과 머리골격에 어울리는가, 계절적으로

손님이 즐겨 입는 옷형태와 색깔에 어울리는 머리형태는 어떤것이겠는가 등 여러 각도에서 손님의 기호를 만족시켜줄 머리형태를 구상해보면서 손님의 의향과 자기의 견해를 일치시키며 세련미를 돋구어주고있다.

그 나날 그는 수많은 고급미용사들을 키워냈으며 주체97(2008)년 공훈미용사의 칭호를 수여받았다.

많은 견습생들이 찾아와 그 비결을 물어볼 때면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흔히 미용사는 미술가처럼 창조적인 조형예술적표현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성실성부터 지녀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손님들의 기호와 시대적미감에 맞는 아름다운 머리형태를 구상하고 봉사해 줄수 있다.》



공훈인쇄공 한인남

조국인민들속에서 널리 애독되고있는 《조선예술》을 비롯한 잡지들에는 평양종합인쇄공장

평판1직장 인쇄공 한인남의 노력도 깃들여있다.

남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일터에서 인쇄공으로 근 40년을 일해오고있는 그는 인쇄발행시간과 인쇄물의 질을 보장하는데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정밀하고 복잡한 설비속내를 손금보듯 파악한다는것이 험치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일터에 배치반자마자 하루빨리 고급기능공들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자기 교대를 마치고도 일터를 뜨지 않고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그는 고급기능공으로 성장한후에도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6명의 기능공을 양성하였고 수십

종에 수백점의 부속품을 자체로 마련하였다.

그리고 설비수리와 관리에 필요한 각종 공구들이 그꼴히 갖추어진 공구함도 만들어 작업반들에서 리용하도록 하였다. 하기에 그를 두고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간진 일썩쉬와 헌신성을 지닌 직장의 보배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 나날 그는 높은 급의 국가수훈을 받았고 주체101(2012)년에는 사회주의애국공로자의 영예를 지니였으며 주체105(2016)년 2월에는 공훈인쇄공칭호를 수여받았다.

글 본사기자 김습기
사진 본사기자 리 철



교원협의회를 하고있는 류금희



강의를 마치고 학생들에게 생활속에서 얻은 경험을 이야기해주고있다.

《생활에서처럼 말하라, 생활에 진실하게 발을 붙이라》

조국의 영화예술인들속에는 능란한 배우연기로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배우들과 함께 남다른 화술로 이름을 남긴 배우들도 있다.

그들중에는 1970년대말부터 30여년간을 화술배우로 일해온 인민배우 류금희도 있다.

관중들은 그의 얼굴은 몰라도 그의 목소리는 누구나 안다.

그만큼 그는 아이로부터 로인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화술형상을 할줄 아는 명배우이다.

사람들과 신인배우들은 그에게 이렇게 묻곤 한다.

《어찌면 말이 그렇게 자연스러운가? 말을 자연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특히 주체 103(2014)년부터

평양연극영화대학 배우학부 교원으로 일하면서 배우화술과목의 강의에 출연할 때면 많은 청강생들에게서도 이런 물음을 자주 받곤 한다.

물론 그는 천성적으로 남녀 그 어떤 형상들에 대해서도 흉내를 잘 내는 취미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재능이고 실력의 전부로 되는것은 아니었다.

그가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짚었던 때였다.

행운이라 할가 그는 창조생활의 첫걸음을 조국에서 유명한 화술배우들속에서 떼었다.

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이며 인민배우들인 박섭, 오향문을 비롯하여 많은 화술재사들

과 나란히 예술형상을 하였다.

초시기 그는 선대배우들의 화술형상을 모방하는데 전념하였다.

그러나 모방만으로는 언제 가도 개성있는 배우, 그 어떤 역형상도 맡아 수행할수 있는 명배우가 되지 못한다는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영화예술론》에서 배우는 창조자로서 자기의 독특한 개성과 함께 형상에서 다양한 인물들의 개성을 살려내야 한다고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으로작을 학습하는 과정에 그는 화면에 등장하는 배우도 그러하

지만 화면뒤의 배우, 화술배우에게는 자기만의 독특한 음식과 형상적특기를 가지는것이 사활적이라는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는 인민들에게 친숙해진 녀배우들의 독특한 소리음색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들과는 다른 자기의 화술형상적목소리를 찾기 위한 탐구를 거듭하였다.

선대배우들의 화술형상에서 우점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활용해보는 과정에 자기의 고유한 화술형상적묘리를 찾고 그것을 부단히 련마하였다.

그는 소리형상을 부드럽고 유순한 소리색갈로, 그러면서도 보다 생활적이고 자연스럽게 형상하기 위한데로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였다.

명배우들의 대사를 베껴가지고 남몰래 련습해보면서 자기의 상대적인 약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결함을 고치기 위해 훈련하고 또 훈련했다.

그에게는 출근길과 퇴근길을 비롯하여 생활의 어느 계기나 다 사색과 훈련의 련속이었다. 생활의 여러 계기에 만나게 되는 직업별사람들의 연령별말투, 억양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기억해두었다. 탁아소에 가서 젖을 먹이는 시간에조차 곁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우정말을 시켜보면서 아이들의 발음에서 특징은 매우 연약하고 작게 들린다는것, 이발이 들성 들성 돌아나 발음이 일매지지 못하고 입벌림이 특이하다는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구체적인 연구와 관찰, 그에 대한 정확한 기억과 부단한 련습과정은 그가 선대배우들의 우점들을 답습만 한것이 아니라 그속에서 자기의것을 찾고 공고히 한 나날로 되게 하였다.

이러한 나날속에서 그는 다른 배우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소리창조로 자기의 모습을 갖추어나가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관중들

을 개성있는 목소리로 끌어당기기 시작하였다.

하여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로동계급편)과 예술영화 《대홍단책임비서》에서 세련되고 활달한 화술로 영화의 견인력을 더욱 높이는데 이바지하였으며 여러 외국영화들의 역형상도 훌륭히 수행하였다.

그는 주체87(1998)년 공훈배우칭호를, 그로부터 7년후에는 인민배우칭호를 받았다.

한학급동창이며 관록있는 명배우들인 인민배우 김정화, 공훈배우 한용팔과 함께 교단에서있는 그가 학생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생활에서처럼 말하라, 생활에 진실하게 발을 붙인 화술이라야 관중들에게 공감을 주고 영화의 견인력을 높일수 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산물고기요리로

평양 대동강수산물식당

소문난 식당

맑은 물 출렁이는 대동강기슭에 맞을 내린 한척의 유람선인양 서있는 평양대동강수산물 식당.

이 식당은 산물고기요리를 이채로운 봉사환경에서 맛볼수 있는것으로 하여 많은 손님들로 흥성이고있다.

3층으로 되어있는 식당은 연건평이 수만㎡에 달한다.

식당에 들어서는 손님들의 눈길을 제일먼저 끌어당기는것은 철갑상어, 룡정어, 련어, 칠색송어를 비롯한 물고기들이 육실거리는 크고작은 실내 못들이다.



식당의 고유한 특징은 그 어느 식사실에서나 산물고기로 요리를 만들어 봉사하는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조국인민들은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을 《산물고기식당》이라고 즐겨 부르고있다.

1층에 자리잡은 즉석봉사식사실에서는 손님들이 유유히 노니는 물고기들가운데서 자기가 먹

고싶은것을 직접 고르면 즉석에서 건져낸 산물고기를 가공하는 요리사의 솜씨도 볼수 있다.

철갑상어회나 룡정어회를 얹은 물고기회비빔국수를 봉사하는 국수식사실과 룡정어탕, 잉어탕, 칠색송어탕을 비롯한 뜨끈한 물고기탕을 봉사하는 황금해식사실은 언제나 만원이다.



라선형계단을 따라 2층에 오르면 민족료리식사실, 가족식사실, 동양료리식사실, 서양료리식사실 등 손님들의 다종다양한 구미를 만족시켜 줄수 있는 다양한 식사실들과 수산물가공품들을 판매하는 상점이 손님들을 반겨맞고있다.

모든 식사실들에는 관형컴퓨터에 의한 조리주문체계가 세워져있다.

식사실들에서는 조선민족료리들과 광동식해산물비빔밥, 마카오식메추리튀기, 다량어초밥, 도미초밥, 칠색송어은지구이를 비롯하여 세계의 이름난 요리들도 맛볼수 있다.

조선식건축형식의 민족료리식사실은 질은 민족적향취로 손님들의 마음을 흥그럽게 해주고있다. 농촌집을 생동하게 형상한 처마밑에 걸어놓은 고추며 마늘, 강냉이이삭들과 《마당》가에 있는 《우물》등을 바라보며 고유한 민족음식들의 진미를 다시금 맛볼수 있다. 이 식사실에 앉으면 창문가로 한쪽의 그림마냥 안겨드는 대동강의 맑은 물과 창천거리, 모란봉의 청류벽이며 룡라도와 5월1일경기장을 바라보며 음식을 들수 있다.

상점에서 판매되고있는 수산물과 그 가공품들은 모든것이 국내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들이다.

부페트식사실과 커피봉사실, 원형식사실 등이 꾸려져있는 3층에서는 여러가지 수산물료리와 함께 청량음료들을 봉사하고있다.

이 식당을 대표한다고도 할수 있는 철갑상어

꼬치구이는 손님들의 구미를 부쩍 끌어당기고 있다.

집대원의 말에 의하면 철갑상어는 2~2.5kg정도일 때 살이 만문하고 고소하여 손님들의 수요가 높는데 산물고기살은 꼬치에 꿰여 숯불에 구우며 대가리나 뼈로는 탕을 끓인다고 하였다.

함흥시 흥남구역에서 왔다는 한 너인은 《철갑상어요리를 여기 대동강기슭에서 맛보게 될줄은 몰랐다. 앞으로 남편과 자식들과 같이 와서 산물고기로 만든 갖가지 요리들을 다시 먹어보려고 한다.》고 하며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이 세워진 주체107(2018)년 한해에만도 여러 차례나 찾아오시여 수산물료리의 질을 높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이곳을 찾는 인민들이 자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봉사활동을 간지고 섬세하게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근로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와서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도 맛보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으며 식당운영과 관련하여 걸린 문제들도 풀어주시는 등 다심한 사랑을 기울여주시였다.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은 조국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을 안겨주시려고 언제나 마음쓰시며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은정속에 나날이 더 번성해지며 대중봉사기지로 인민의 사랑을 받고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혁철
리 철



1층 국수식사실



2층 초밥식사실



2층 민족료리식사실



3층 부페트식사실



3층 커피봉사실



3층 원형식사실



민족적색채가 짙은 다양한 공예품들을

조국의 만수대창작사 공예창작가들이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민족공예를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체성과 민족성, 높은 예술적형상은 이곳 창작가들에게 있어서 창작활동의 기준으로 되고 있다. 어떤 종류, 어떤 주제의 작품을 창작하든지 그들은 항상 이 기준에 립각하여 창작활동을 벌려나가고있다.

하지만 창립초기 공예창작단의 창작가들속에서 자개박이대형꽃병을 비롯한 여러 공예작품의 옷칠을 할 때 전통적인 검은색이 아닌 원색을 선택하기도 하고 자개박이도 국내의것을 리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만든 공예품을 조선의 공예품, 조선의 자개박이공예품이라고 뿔뿔이 말할수 없었다.

창작가들은 선조들이 창조한 전통적인 기법과 색을 살리면서도 재료를 국내의것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고심어린 노력끝에 그들은

옷칠공예의 다양한 기법들을 터득하고 활용하게 되었으며 조개껍질도 국내에서 백색도가 높고 광택이 나는것을 찾아내어 작품창작에 구현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 그들이 창작한 전통적인 검은색바탕에 흰자개박이를 한 대형자개박이꽃병 《백두산의 환희》를 비롯한 작품들이 국보적인 작품으로, 민족의 정취가 넘치는 조선식의 자개박이옷칠공예로 높이 평가되게 되었다.

금속공예, 목공예, 만년화, 돌공예창작가들속에서도 전진이 이룩되었다. 특히 금속공예창작가들은 민족의 전통적인 유선칠보장식기법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진지한 노력끝에 은사장식기법과 금속선상감기법들을 연구완성하였고 작품창작에 구현하고있다. 보다는 그들이 정밀주조용석고의 제조기술과 주조공정을 확립함으로써 국

내의 자원과 기술, 설비로 유색금속정밀공예품들을 창작할수 있게 한것이다.

이곳 창작단에서는 눈으로 가늠해보기 어려운 세부까지도 놀랄만큼 재치있게 처리할수 있는 높은 자질을 갖추기 위한 사업도 일관하게 내밀고있다.

공예가는 창작적기량이 안받침되는것과 함께 회화가인 동시에 조각가, 도안가가 되어야 하며 재료전문가로도 되어야 한다는것을 명심한 이곳 창작가들은 다방면적인 지식의 탐을 쌓고 창작적기량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있다.

그들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공예기법들에 대해 서술한 수많은 책들을 파고들었고 현대자료들도 깊이 연구하였다. 한편으로는 오랜 창작가들에게서 이악하게 배웠으며 좋은 종자를 쥐기 위해 나라의 명승지, 명소들에 대한 답사도 줄곧 하였다.



이들의 노력에 의해 조국의 민족문화의 보물고는 더 풍부해지고있다.

《만년》약품들의 효능을 높여



인체의 면역을 높여주고 장기를 튼튼하게 하며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건강약제인 보약은 오늘 사람들속에서 여전히 인기 제품으로 되고있다.

만년제약공장에서 생산되고있는 《만년》상표를 단 보약들이 구매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경옥고, 십전대보환, 원형삼꿀, 개성고려인삼탕 등 30여가지의 보약들은 이미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들에 명약품으로 등록되었다.

약들은 조국의 유명한 개성고려인삼과 무공해의 천연수림속에서 자라는 천연약재들을 주원료로 하여 만들어지고있다.

생산공정의 GMP화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공장은 지난 30여년간 품질에 대한 국가표준과 국제적인증을 우선시하고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하고있다.

생산에서 특징적인것은 최신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고려약액

스의 함량을 95%이상 보장하여 보약의 효능을 높이고있는 것이다.

공장에서는 보약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각종 암치료와 순환기계통치료에 좋은 고려약들을 개발생산하고있다.

살구씨에서 아미그달린을 추출분리하여 만든 비타민B₁₇주사약과 붓나무껍질과 잎에서 트리테르페노이드를 분리하여 만든 베를린교갑약, 황금아연기판지

염교갑약을 비롯한 공장의 제품들은 천연고려약재를 리용한 우수한 항암, 항균고려약들로서 사용자들속에서 반향이 좋다.

《우리는 고려약생산의 규모와 범위를 넓혀 인기가 높고 사멸되지 않는 새로운 독점지표들을 연구개발해내는것을 목표로 하고있다.》라고 지배인 김정련은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새 제품생산을 위한 기술협의회를 진행하고있다.



공장에서 받은 국가품질인증증서와 생산된 약품들의 일부



만수대창작사 공예창작가들이 창작한 공예품들의 일부

창작단에서는 창작가들이 매일아침 속사를 하는것을 습관화하도록 하는 한편 기량발표회, 작품합평회 등을 자주 조직하여 그들의 경쟁심을 더욱 높여주었다.

이 과정에 창작가들속에서 새로운 창작기법들이 태어나게 되었다.

금속공예 《공화국창건 70돐 기념컵》, 만년화 《칠보산의 피아노바위》, 《리명수폭포가 바라보이는 곳에서》, 돌공예 《백두의 준마》를 비롯한 많은 작품들이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공예품으로 평가되었다.

뿐만아니라 현실주제와 국화, 자연풍경을 형상한 작품

들, 생활적이면서 민족적색채가 짙은 다양한 공예품들을 수 많이 창작하였다.

조국의 민족문화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려는 이곳 창작집단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임철병

재일조선인민족교육말살을 노린 일본반동들의 만고죄악의 력사는 절대로 부정할수 없다

-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비망록 -

(전호에서 계속)

살인, 방화, 집단폭행의 주범

일본당국은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을 말살하기 위하여 민족배타주의가 뼈속까지 배여있는 극우익깡패들을 내세워 조선학교들과 재일동포자녀들을 대상으로 살인, 방화, 집단폭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일본반동들이 손때 묻혀 길러낸 우익깡패들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조선학교 학생들을 살해하는 귀족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1962년 7월 규슈조선중고급학교 차철이학생은 조선학교 교복을 입고 조선말을 한다는 리유로 일본불량배의 칼에 찔려 14살 꽃나이에 숨을 거두었다. 같은 해 11월 3일에는 가나가와조선중고급학교 신영철(15살)학생이 일본 호세이대학 부속 제2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문화전시회를 참관하던 도중 이 학교 불량배들의 폭행으로 두개골이 깨어져 절명하였다.

1963년 5월 2일 저녁 도쿄도 시부야역 도요꼬백화점 지하거리에서 일본 고꾸시깡대학부속 고등학교 불량학생 25명은 도쿄조선중고급학교 학생 5명에

게 생트집을 걸어 집단폭행에 가하다 못해 변광식학생의 오른쪽다리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5월 17일 일본 닥쇼구제1고등학교 불량배 3명과 그를 배후조종한 극우익분자에 의하여 도쿄조선중고급학교 학생이 백주에 칼에 찔리우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였다.

일본당국은 이런 극히 위험한 살인사건, 살인미수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살인범, 혐의자들을 적극 비호하였으며 《증거부족》이라느니, 《도망칠 위험이 없다.》느니 하는 미명하에 체포한 범인들을 감싸주거나 놓아주면서 파렴치하게 놀아대었다.

일본반동들은 극우익깡패들을 내몰아 조선학교들에 대한 방화도 공공연히 감행하였다.

1962년 3월 이바라기조선중고급학교가 화재로 불타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찰당국은 증거가 불명확하다는 리유로 화재의 원인을 끝까지 밝히지 않은채 사건을 덮어버리었다.

1968년 1월 2일 밤 나카오사

까조선초중급학교에 도적고양이마냥 기어든 악당들은 학교건물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2층교사를 몽땅 불태워버리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재일동포들의 피땀이 스민 조선학교들이 소각되는 엄중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였지만 일본경찰당국은 화재사건수사를 고의적으로 태공하였다. 총련민족교육에 대한 일본당국의 로골적인 적대감은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집단폭행과 랏치, 협박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하였다.

1965년 2월 6일 고베시의 3명의 경찰들은 지나가는 고베조선중고급학교 교영일, 강하훈학생을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다니지 않는다는 당치않은 구실밑에 경찰서로 끌고가 옷을 벗기고 때리고 차며 담배불로 지지는 등 갖은 악행을 가하였으며 이러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학생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너희들 조선놈은 일본에서 큰소리를 치지 못한다.》고 모욕하였다.

꼭뒤에 부은 물이 발뒤꿈치로 흐른다고 경찰들의 무지한 폭거는 일본의 불량배들에게 그대로 전파되어 재일동포학생들의 생

명을 노린 위험한 집단폭행사건으로 이어졌다.

1964년 3월 19일 도쿄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1학년 학생 김준덕에게 달려든 일본깡패들은 몽둥이, 기와장, 콩크리트조각 등으로 그를 사정없이 내리쳐 피투성이로 만들어놓고 도망쳐버리었다. 김준덕학생이 간신히 일어나 근처에 있는 주재소에 신고하였으나 경찰들은 《범인을 찾는다.》고 하면서 부상을 당해 운신도 제대로 못하는 그를 1시간이상이나 끌고다니는 비인간적인 만행을 감행하였다.

1966년 2월 23일 일본불량배 30여명은 《상대가 조고생이면 누구라도 좋다. 해치우라.》고 뇌까리면서 도쿄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학생 4명에게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몽둥이와 맥주병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일본우익깡패들이 조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폭력행위는 1962년부터 1972년까지의 사이에만도 무려 100여건이나 된다.

일본반동들은 조선치마저고리를 입은 연약한 재일조선녀 학생들을 주되는 폭행대상으로 삼고 치졸한 악행을 일삼았다.

1983년 11월 24일 일본 가와사키시에서는 가나가와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3학년 녀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날 한 일본깡패는 치마저고리를 입고 학교에서 돌아오던 녀학생에게 《조선인은 일본에서 나가라.》 등의 폭언을 퍼부으면서 나무방망이로 그의 머리를 내리쳐 실신시키었다. 이로부터 불과 10여일만인 12월 6일에는 요꼬하마에서 조선학

교 녀학생이 숨어있던 깡패로부터 칼부림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사건이 발생한 즉시 현지경찰당국을 찾아가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하지만 경찰당국은 고의적으로 사건수사를 질질 끌면서 깡패들의 범죄행위를 눈감아주었을뿐 아니라 《일부 망나니들의 갈겜질》로 밀막아버리었다.

치마저고리를 입은 조선학교 녀학생들을 겨냥한 폭행사건은 1980년대초부터 1990년대말까지 해마다 수십, 수백건에 달하였으며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광기어린 《치마저고리사냥》은 끊임없이 감행되었다.

가장 대표적인것이 조일평양선언채택후인 2003년 1월 29일 도쿄 한복판에서 감행된 조선치마저고리칼부림사건이다.

이 치떨리는 인권말살행위에 경악하여 국제학생동맹과 세계직업련맹 서기국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단체들은 일본당국에 항의전문을 보내어 조선학교들과 학생들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을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일본의 량심적인 인사들과 교육관계자들까지도 《사회적약자에 대해 폭력이 가해지는 현 사태는 지난날의 간도대지진이나 전후의 흉악한 차별사건을 방불케 한다.》고 하면서 일본사회의 뿌리깊은 민족차별감정을 개탄하였다.

2001년 3월 유엔인종차별청산위원회는 재일조선인들 특히 어린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폭행과 이에 대한 일본당국의 불충분한 대응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일본정부가 그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을 권고하였다.

국제사회와 일본인민들의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재일조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반동들의 갖은 협박과 폭언, 폭행은 끊기지 않았다.

2022년 10월에만도 일본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군사적대응조치들을 구실로 일본사회에 반공화국, 반총련여론을 대대적으로 류포시키면서 살벌한 조선인배타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일본반동들의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책동으로 말미암아 2022년 10월 4일 집으로 돌아가던 도쿄조선중고급학교 중급부 2학년 남학생이 우익깡패로부터 폭행, 폭언을 당한것을 비롯하여 2개월사이에만도 조선학교들과 학생들에 대한 협박과 폭언, 폭행사건이 12건이나 련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우에서 언급된 조선학교들과 재일조선학생들을 대상으로 감행된 살인, 방화, 집단폭행자료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인륜이 말라버린 일본땅에서는 지금 이 시각도 조선학교들과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형형색색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감행되고있다.

조선학교들과 학생들에 대한 살인, 방화, 집단폭행사건들은 재일조선인민족교육을 반대하는 일본반동들의 극심한 민족배타주의와 차별정책의 로골적인 표현으로서 일본반동당국의 조종하에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감행되어온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들이다.

(다음호에 계속)

숭고한 리념이 안아올린 기념비적창조물

평양의 모습이 한해사이에 또 달라졌다.

송화거리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가 일떠선데 이어 화성지구에 인민의 새 거리가 건설되었다.

화성지구의 150여정보에 일떠선 다양한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 봉사망, 시설물들은 한해사이에 완공되었다.

기적이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는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은 과연 어떻게 일떠선 것인가.

금수산태양궁전지구를 인민의 행복과 사회주의문명이 꽃피어나는 리상향으로 전면시키며 5개년계획기간에 수도시민들의 살림집문제를 해결하려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의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첫해 성과에 토대하여 화성지구에서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도를 펼치시고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들의 편의를 우선시하는것은 도시건설의 핵이라고 하시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에 맞게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살림집배치계획안과 조감도, 형성안 등을 보여주시고 인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평면배치, 구획배치를 잘하며 건축형식도 새롭게 하도록 하시였다.

마감건설의 비중을 높여 도시미화에서 현대적인 맛을 더 잘 살릴데 대한 문제, 모든 급양, 상업, 편의봉사시설들을 살림집구획안에 꾸려주고 간선도로와 지선도로들을 련결시켜 주민들의 편의를 보장해줄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그이께서 지도하신 형성안은 1 63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주체 111(2022)년 2월 그이께서는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 참석하시

여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강력히 견인하게 될 모든 건설대상들중에서도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제일 앞서 나가야 할 기본전구로 규정하시였다.

화성지구 1단계 건설은 최악의 조건과 환경속에서 진행되었다.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책동하였고 돌발적인 방역위기형세는 조국의 전진도상에 더 큰 장애를 조성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에서 현재의 방역형세가 엄혹하다고 하여도 사회

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향한 우리의 전진을 멈출수 없다고 하시면서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련포온실농장건설과 같은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숙원사업들을 제기일안에 손색없이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의 탁월한 령도와 건설자들과 전체 인민의 불같은 애국심에 의하여 공사량이 송화거리보다 훨씬 더 방대한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은 계획된 시일안에 계속되었다.

그이께서는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군민건설자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평양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웅장하게 꾸리며 수도뿐 아니라 지방건설

에서도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감으로써 문명한 사회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응지를 다시금 피력하시였다.

건축은 력사가 남긴 자욱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대를 대표하는데서 건축만큼 위력한 언어가 없고 건축만큼 생동한 화폭은 없다.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계획에 따라 화성지구 일떠선 1만세대 살림집은 인민을 위한 사랑의 력사가 수놓아지는 시대의 자욱이고 축도이며 인민을 하늘높이 떠받드는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리념이 안아올린 기념비적창조물이다.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교원 강대일



새 거리에 넘치는 기쁨

동포들에게 고향소식을 전하기 위해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새로 일떠선 평양시의 화성거리로 발걸음을 옮기었다.

150여정보의 넓은 부지에 특색있게 뻗어나간 대도로들을 중심으로 서로서로 키돋움하며 우아하고 황홀한 자태를 시위하는것만 같은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조형화, 예술화된 각양각색의 공공건물들과 봉사당, 시설물들...

화성거리는 한쪽의 미술작품을 방불케 하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지난 4월에 준공식을 하였지만 지금도 시안의 많은 사람들이 휴식일과 명절날이면 새 거리구경을 와서는 여기저기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이채로운 새 거리의 풍경을 사진에 담아가던 우리는 화성구역 청화1동 8인민반 9층 4호집에 들려보았다.

집안의 가장인 박정옥로인이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며 우리를 맞아주었다.

로인은 아들과 며느리는 일을 나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어서 들어와 집구경부터 하라며 우리의 손을 잡아끌었다.

덩실한 방 세칸에 널직한 베란다, 가정주부들의 마음에 흠씩 들게 꾸러진 부엌을 비롯하여 새집은 정갈하였다.

집 자랑끝에 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 하는것이였다.

《국가에서 많은 품을 들여 지은 멋있는 살림집을 무상으로 우리 가정이 받아안았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는 다로동자입니다. 원래 살던 집이 작다며 나라에서는 우리에게 새집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난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맡은 일을 더 잘하라고 이르군 합니다.》

우리와 담소를 나누는 로인의 주름깊은 얼굴에서는 시종 행복감이 사라질줄 몰랐다.

우리가 로인과 기쁨을 함께 나눈지도 퍼그나 시간이 흘러서야 아들이 들어섰다.

아들은 요즘 자기는 일터에 나가도, 친구들을 만나도 축하의 인사만 받고있다고 하면서 그럴수록 우리 제도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 한가득 차오른다고 하였다.

이어 초인종소리가 울리더니 구역인민위원회 일꾼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생활에서 부족되는 것이 없는가, 물은 잘 나오는가 등을 구체적으로



로 알아보며 살림살이형편을 료해하였다.

취재를 왔다는 우리의 말에 한 일꾼은 이렇게 말하였다.

《어느 가정에 들려보아도 기쁨에 넘쳐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을것입니다. 이 살림집들이 어떻게 마련된것입니까. 우리 조국력사에서 가장 위험천만하고 급박한 난관과 장애들이 가로막아나섰던 극난의 시기에 건설된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어떤 곤난속에서도,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인민과 한 약속을 가장 철저하게, 가장 완벽하게 실현해나가기 위하여 화성지구에 현대적인 새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습니다. 바로 그 사랑에 의하여 일떠선 우리의 화성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리의 어디를 가보아도 웃음이 넘쳐나고있는것입니다.》

화성거리에 넘쳐나는 기쁨은 새집들에만 깃들어있는것이 아니였다.

교육조건과 환경이 그뿐히 갖추어진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들에 가보아도 웃음넘친 학생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고 유치원, 탁아소에 가보아도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볼수 있었다.

원림경관을 펼친 거리에서 만났던 원림관리원 김창일이 하던 말이 떠올랐다.

《예로부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



데 우리 나라에서는 1년이면 천지개벽되고있습니다. 새라새롭게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나는 새로 선 화성거리에 관리원으로 탄원하였습니다. 인민을 제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인민관이 응

축된 이 거리가 더 환해지게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도 정성을 고이겠습니다.》 정말 인민의 기쁨, 보답의 맹세가 넘쳐흐르는 화성거리였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곳을 쉬이 떠나고

싶지 않았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진대 20여년전 화성땅을 찾았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살고있는 리춘성 동포가 이제 고향을 방문하게 된다면 아마 여

기에 놀러왔겠다고 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는 화성거리를 떠났다. 글 본사기자 김슬기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초 석



공훈설계가 장학근

전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소에 배치받아 대동강 발전소건설에 착수하던 때가 어제같은데 벌써 저의 근무년한이 47년이 되었습니다. 내 살점같은 자식의 이름과 같은 금야강 발전소, 녕원발전소,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들의 이름을 부를 때면 감회가 새롭습니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하나의 발전소건설은 협동설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지질조사 및 설계는 그 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다.

그는 위험한 물길굴건설장에 들어가 지질상태를 구체적으로 조사장악하기도 하고 험준한 산밭을 뚫고 강줄기를 따라 현 지답사를 진행하며 설계의 선 하나, 점 하나를 그어나갔다.

《지금은 발전된 탐사수단들이 있어 조사가 편리하지만 처음 발전소를 건설할 때에는 정말 험치 않았습니니다. 한번은 지질조사를 위해 물길굴건설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니 옷은 물론 지질의 측정값을 적은 수첩도 푹 젖어있었습니다. 이때 꺾 한 일을 다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니 온몸의 기운이 발 밑으로 다 사라지는것같았습니다. 솔직히 직업을 바꾸고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니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마음속동요로 모대길 때 그의 뇌리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라없던 그 세월 중국에서 살다가 나라가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살이 된 자기를 등에 업고 조국으로 온 아버지.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자고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개선연설을 들으며 조국의 주춧돌이 되리라 결심한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어느한 설계연구소장으로 사업하며 한생을 그렇게 살았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나라를 떠받드는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고 늘 강조하였고 그들의 마음에 애국의 불씨를 심어 주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잘 띄우지 않고 알아주는 사람은 많지 않아도 자기가 하는 일이 조국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주저없이 그 길을 걸은 아버지는 자식들의 거울로 되었다.

그는 나약한 마음을 먹었던 자신을 타매하며 량심의 길을 변심없이 걸어갔다.

그러다나니 그는 1년 365일 중 대부분을 늘 객지에서 생활하게 되었으며 첫 자식도 40살

에야 보게 되었다. 발전소들의 착공날자와 준공날자는 알아도 자식들의 생일은 감감 잊고살아 온 그였다.

그는 자기 일에 대한 무한한 애착을 가지고 지질학분야에서 나서는 절실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질학정보문자를 발명하여 지질조사에서 신속성을 보장하였으며 수학적으로 모형화한 새로운 암반평가방법도 찾아내었다.

이외에도 수많은 창의고안으로 공사기일을 앞당길수 있게 한것은 물론 중소형수력발전소설계에 도움을 주는 여러권의 도서들도 집필하였다.

지질학전문가들의 존경을 받고있는 그는 공훈설계가, 2.16과학기술상수상자이다.

주체105(2016)년 나라에서 과학자들에게 주는 최고상인 2.16과학기술상을 받던 날 그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였다.

《자기 일에 생색을 내느라 하지 말고 너희들을 공부시켜주고 내세워준 조국의 번영에 이바지하는 초석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거라. 이게 우리 집의 가풍이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 평

대동강맥주

시원하면서도 상쾌한 맛을 주는 대동강맥주는 조선에서 나는 보리와 호프를 원료로 하여 만든 음료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맥주들과 견주리만큼 우수한 양조기술이 적용된 대동강맥주는 한번 마시고나면 또 한번 마셔보고싶은 강한 느낌을 줍니다.

비타민과 단백질, 광물질을 함유하고있어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동심을 불러오는 줄넘기놀이

《큰 물결 작은 물결 바람이 불면 돌아갑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며칠전 저는 어느한 농촌마을의 동구길에서 여러명의 처녀애들이 부르는 청맑은 노래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눈길을 돌리니 7~8살 난 소녀들이 공원에서 줄넘기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느라니 몇해전 신의주시 본부유치원을 참관하였던 재중동포 김진향녀성이 어린이들의 줄넘기놀이를 형상한 공연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해하면서 우리에게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국에서 아이들의 줄넘기놀이를 보니 지나간나의 유년시절이 어제런듯 되새겨져 저도모르게 동심에 젖어듭니다. 나의 고향 광산에서는 소녀들이 저 놀이를 <고무땅>이라고 부르며 즐겨 놀곤 하였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만은 늙지 않는가 봅니다. 그렇듯 년로한 동포녀성도 아이들의 줄넘기놀이를 보며 어릴적동무들과 함께 고향마을 동구밖에서 해저무는줄 모르고 뛰어놀던 시절이 못견디게 그리웠던가 봅니다.

그럼 이번호에 우리 민족이 창조하고 대대로 즐기어온 비물질문화유산의 하나인 민속놀이 《줄넘기놀이》에 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줄넘기놀이는 줄을 돌리거나 고정시켜놓고 그것을 넘으

면서 뛰노는 어린이들의 운동놀이입니다.

줄넘기가 언제 생겨났는지 그 년대는 명확치 않지만 조선봉건왕조시기(1392년-1910년) 어린이들속에 널리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력사기록들에는 《옛 풍속에 어린이들이 줄의 량끝을 잡고 뛰어넘으며 노는 민속놀이가 있는데 천여번까지도 뛰어넘었다. 이 놀이는 어린이들의 다리힘과 기운을 키워준다. 그 명칭을 <줄넘기>라고 한다.》고 써여있습니다.

지난 시기 평안도지방의 소녀들은 고정시킨 줄넘기를 하였는데 이때 고무줄을 리용하였으므로 《고무줄놀이》, 《고무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줄넘기놀이는 7~8살부터 15~16살까지의 처녀애들이 주로 이른봄부터 초여름사이에 많이 하였습니다.

줄넘기는 그에 리용된 줄의 재료와 탄력성에 따라 고정시켜놓고 할수도 있고 돌리며 할수도 있습니다.

고정시킨 줄넘기에 리용되는 줄은 늘었다줄었다 하는 성질을

가져야 합니다. 돌리는 줄넘기에 리용되는 줄은 두명이 각각 줄의 한끝씩 잡고 원을 그리며 돌리기때문에 신축성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줄넘기는 놀이에 참가하는 인원수에 따라서도 방법이 여러가지입니다.

혼자서 자기 량손에 짚은 줄을 한끝씩 쥐고 돌리면서 뛰어넘는 방법(일명 뽕줄운동), 두명이 긴줄을 마주 쥐고 서서 반원형으로 크게 휘돌릴 때 거기에 여러명이 뛰어 들어가 넘는 방법, 한편의 여러명이 고무줄을 팽팽히 늘이고 상대편은 한명씩 그안에 들어가 노래에 맞추어 룰동적으로 도는 방법이 있습니다.

줄넘기는 어린이들의 체력 단련과 정서생활에 좋은 영향을 주고있습니다. 줄넘기놀이를 하며 날렵한 몸동작과 부단한 조약을 하는 과정에 몸매가 고와지고 키도 크게 되며 몸도 튼튼히 단련되게 됩니다.

줄넘기놀이는 노래가 동반되여야 흥취도 있고 재미있게 진행될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옛날부터 전하여오는 동요라든가 그 시기에 즐겨 부르는 노래에 맞추어 줄넘기동작을 수행합니다. 아이들은 놀이의 시작전에 노래의 어느 부분에서 줄을 넘을 때 발동작은 어떻게 하며 몸동작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약속을 먼저 하여 그대로 수행하는 과정에 문화적소양도 높게 됩니다.

오늘날 아이들의 줄넘기놀이는 자그마한 동구밖을 벗어나 예술공연무대와 국제교에무대우에서 난도높은 기술동작들을 펼쳐보이는 예술종목의 하나로 발전되었습니다.

동포여러분, 이렇게 민속놀이 《줄넘기놀이》는 로세대동포들에게 동심을 불러오고있습니다. 그속에 바로 고향에 대한 사랑, 친척, 친우에 대한 사랑도 함뻍 담겨져있습니다.

우리는 줄넘기놀이가 새세대 동포들도 자기 조국을 아는 민족의 한 성원이 되도록 이끌어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글 본사기자 려 해
사진 본사기자 라평렬
주체111(2022)년 9월 촬영



발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서 698년부터 926년까지 200여년간 존재하면서 강대한 국력과 함께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킨 봉건국가이다.

668년 9월 고구려멸망후 그 유민들은 외적들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669년경에는 고국회복을 위한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았다.

특히 대조영이 외적에 의해 이주당한 고구려유민들을 묶어 세워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이때 수하의 군사는 수십만으로 늘어났다. 고구려유민들이 사망에서 모여들자 대조영은 698년에 동모산(중국 길림성 돈화시 성자산성)에서 봉건국가 진국의 건국을 선포하였으며 초대왕으로 되었다.

진국은 710년대초에 나라이름을 발해라고 고치었다.

대조영에 의하여 발해가 창건됨으로써 수십년간에 걸친 고구려유민들의 반침략투쟁은 성과적으로 결속되게 되었다.

발해의 주민은 대부분 고구려유민들이고 일부 말갈인들도 있었다.

건국이후 국력이 강화된 발해는 동쪽의 나라인 신라와 선린관계를 맺었으며 서북쪽의

돌궐(후동돌궐)에 사신을 파견하여 국교관계를 수립하는 한편 북방의 모든 세력과 연합하여 외적의 침략을 견제하는데 힘을 기울이었다.

그후 외적의 침입을 성과적으로 막아낸 발해는 주변나라들과의 국교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동방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해나갔다.

발해의 통치제도는 3성, 6부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각 관청들이 소속되어있었다.

3성은 최고중앙관청들인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었다.

발해에서 3성, 6부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기구는 대체로 8세기중엽에 기본적으로 정착되었다.

발해에는 황제국가의 정치기구인 3사, 3공제도도 있었다.

발해에는 3성, 6부외에 중정대, 전중시, 종속시, 문적원, 태상시, 사빈시, 대농시, 사장시 등 많은 중앙관청들이 있었다.

발해는 정연한 지방통치체제

를 갖추고있었다. 지방통치체제는 고려후국과 같이 후국왕에게 통치권을 위임한 지역도 있었으나 대부분 국왕의 직할지로 되어있었다.

발해의 군대는 육군과 수군으로 구성되었으며 군사제도는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발해에서는 인민들의 창조적 노동에 의하여 8세기-9세기에 농업, 수공업생산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대외무역도 일정하게 발전하였다.

토지가 기름져 곡식과 남새, 과일 등이 많이 생산되었다. 곡식은 조, 보리, 콩, 수수 등 밭곡식이 기본이었고 일부 지방들에서는 벼를 재배하였다. 초원들에서는 소, 말, 양, 돼지 등을 많이 길렀고 북부와 동부의 산간지대들에서는 여러가지 산짐승사냥도 많이 하였다.

강하천과 호수, 바다에서는 수산물도 많이 생산되었다. 농업, 수공업, 집짐승기르기, 사냥, 물고기잡이 등 생산이

발전하는 과정에 각 지방에서 많은 특산물들이 생겨나 다른 나라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발해에서는 광석채굴과 여러가지 수공업도 발전하였다. 인민들의 부역로동에 의하여 금, 은, 동, 철 등의 광석들이 생산되고 가내수공업, 민간전업수공업 및 관청수공업 등이 병행하여 발전하였다.

수공업자들은 베, 명주, 도자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제품들을 생산하였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치미를 비롯한 건축장식물들과 기와, 벽돌들은 당시 수공업의 높은 발전수준을 보여준다. 수공업제품들은 다른 나라에도 수출되었는데 특히 도자기가 이름났었다.

발해에서는 과학과 기술이

특히 발전하였다.

발해사람들은 수학지식을 실천활동에 널리 응용하였으며 천문학과 력법(력서작성법)도 발전시키였다.

발해학자 오효신은 859년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 선명력이라는 력서를 가져다주었는데 일본에서는 이 력서를 861년 6월부터 1684년 3월초까지 820여년간 사용하였다고 한다.

고구려문학의 터전우에서 발전한 발해문학은 주제사상적 내용에서 애국주의로 특징지어진다.

대표적작품으로는 8세기중엽 양태사의 시 《밤에 다듬이소리를 듣고》, 9세기초엽 왕효렴의 시 《달을 보고 고향을 그

리면서》이다.

발해음악에서는 《납소리》, 《진소리》 등 인민창작음악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악기로는 탄쟁, 추쟁, 봉수공후, 수공후, 와공후, 각종 북 등이 있었다.

발해미술은 돌조각과 공예품들이 유명하였다.

9세기초엽 발해의 발전모습을 직접 목격한 당나라사람들은 발해를 해동성국(바다동쪽의 융성한 나라)이라고, 거란족사람들은 발해를 료동성국(료수동쪽의 융성한 나라)이라고 하였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실장 김성호

장기수풀이 (6)

장기격언

장기 두다 어디 갔나?

장기수를 지나치게 오래 생각하는 것을 야유하여 하는 말이다. 또한 형세가 완전히 기울어져 더는 빠질데없이 된 뻔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질질 끄는 현상을 비유하여 하는 말이다. 한편 이 말은 일단 진것을 인정하고 다시 두는것이 장기레이라는것을 뜻하고있다.

장기수풀이 (5)에 대한 답

ㄷ4병 ㄴ4, ㄴ5사 ㄴ4, ㄷ8포 ㄷ4, ㄱ4궁 ㄴ5, ㄱ9차 ㄴ9, ㄱ7말 ㄴ9, ㄱ4상 ㄴ7, ㄴ5궁 ㄷ6, ㄷ4포 ㄷ9, ㄱ6말 ㄷ5, ㄷ1차 ㄷ5, ㄷ6궁 ㄷ5, ㄷ5말 ㄷ7, ㄱ5상 ㄷ8, ㄱ7말 ㄱ6, 장훈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합니다.

금니화로 화단을 빛내인 리징

리징(1581년-?)이 중세 회화사에 이바지한 가장 큰 공적은 금니화로 화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것이다.

리징은 1581년에 도화서 화원으로 있던 리경윤의 서자로 태어났으며 자를 자함, 호를 허

주라고 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도화서에서 동물과 산수화를 잘 그리는 이름을 남긴 사람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그림들을 보면서 자기도 언젠면 저렇게 그림을 잘 그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

고있었다.

그리하여 리징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 극성스럽게 그림그리는 재간을 띠어 하였다.

그가 어릴 때 얼마나 그림그리기에 열중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어느날 리징은 주변에 있는 산천경계를 그려보려고 시도하였다.

주변의 산들에는 봄이 오면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가을이면 붉은 단풍이 찾아들고있었다. 하지만 그는 산천경계를 한눈에 볼수 있는 장소를 찾아다녔지만 좀처럼 찾을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점심밥을 먹고 마당에 나섰던 리징은 피륙 자기 집뒤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에 올라가면 그 장소를 찾아낼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무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둘러보니 과연 고향마을과 주변의 산천경계가 한눈에 안겨왔다.

리징은 그 풍경을 그림에 담으려고 밤낮을 잊고 사흘동안이나 꼬박 나무우에 올라가있었다.

한편 리징이 집에 사흘이나 들어오지 않자 집안에서는 소동이 일어났다. 분명 어디에 갈 곳은 없겠는데 며칠씩이나 들어오지 않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누이, 형들을 비롯한 온 집안식구들이 떨쳐나서 그를 찾으려고 마을과 주변을 살살이 뒤져보았으나 찾을 길이 없었다.

사흘째 되는 날 집안식구들이 너무 속이 상하여 맥을 놓고 주저앉아있는데 누이가 뒤뜨락의 느티나무에 올라가 앉아있는 리징을 발견하였다.

집안식구들은 너무 어이없어 리징더러 빨리 내려오라고 소리쳤다.

나무에서 내려온 리징을 보는 순간 아버지는 그만 성이 머리끝까지 치밀어올라 회초리로 사정없이 때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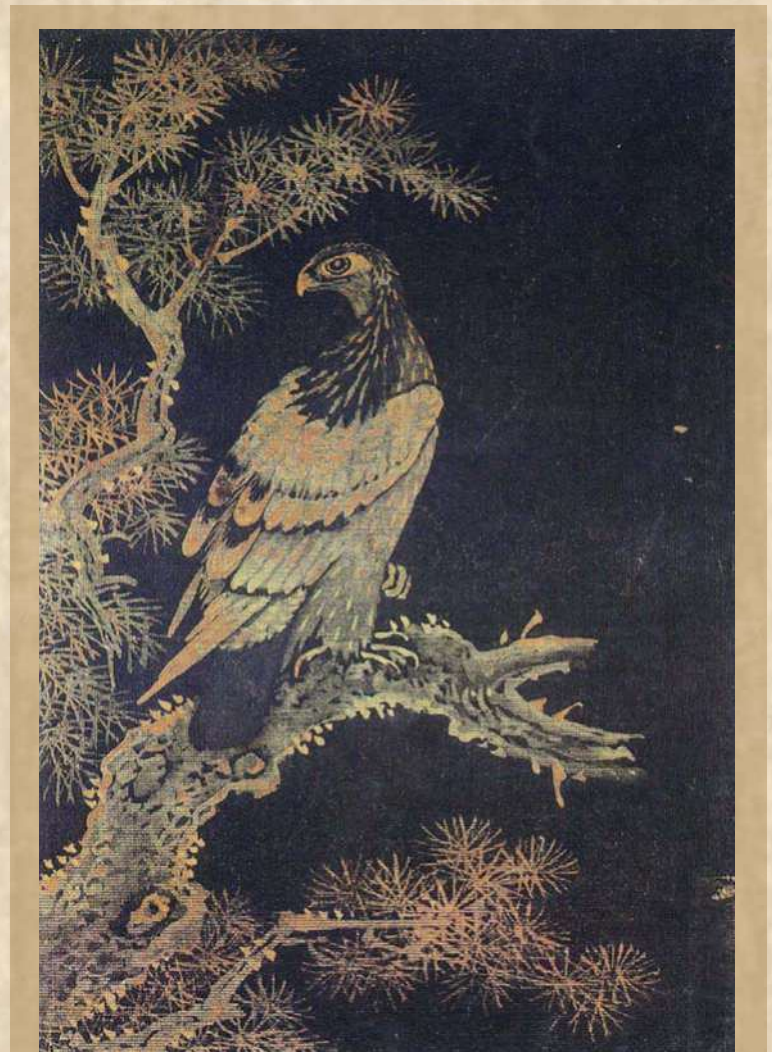
아버지에게서 매를 맞은 리징은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는 소리 한마디 없이 계속 땅바닥만 내려다보고있었다.

매질하던 아버지가 이상하여 리징이 눈길을 쫓고있는 땅바닥을 여겨보니 아니 글썽 떨어지는 눈물로 날아가는 새를 그려놓은것이 아닌가.

눈물로 그린 새를 보면서 아버지는 아들이 앞으로 훌륭한 화가가 되리라는것을 예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림공부에 필요한 지식을 배워주고 화구들을 마련해주었다고 한다.

연암 박지원은 리징에 대한 이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비록 자그마한 기교라도 모든것을 잊고 노력해야 성공할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이런 꾸준한 노력으로 하여 리징은 그림그리기에서 뛰어난 솜씨를 발휘할수 있었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도화서의 화원으로



《독수리》(22×15cm) 비단·금니

로 될수 있었으며 얼마후에는 당시 우리 나라 풍경화에서 그 누구도 당해낼수 없는 명화가로 소문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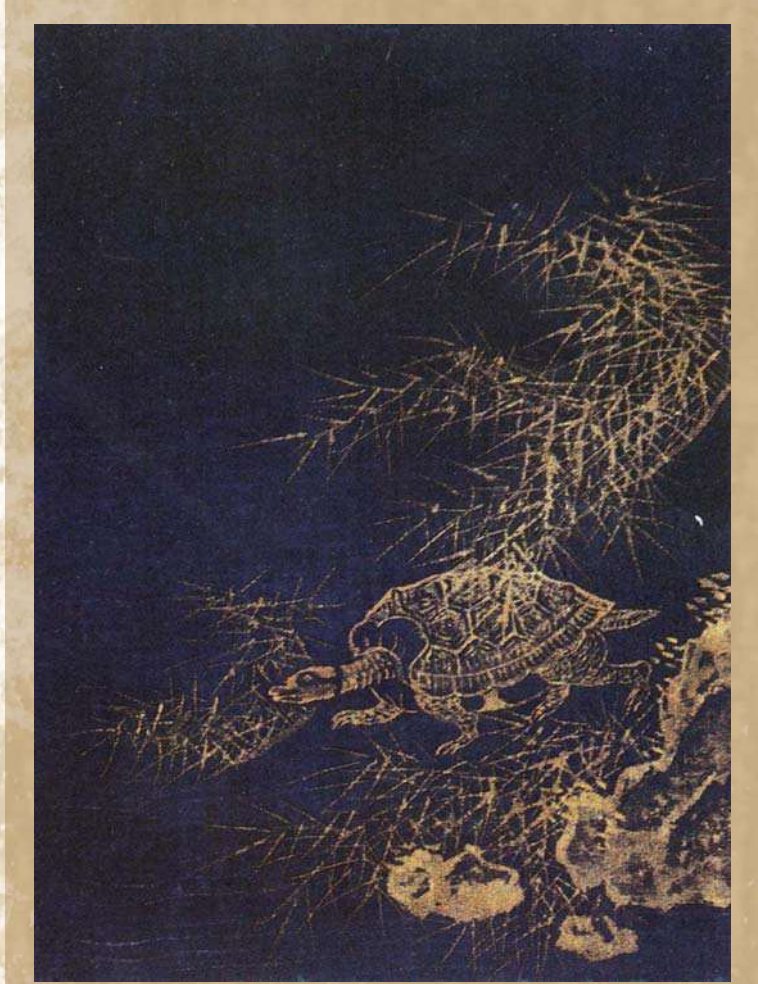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그의 대표작은 《여름풍경》, 《사슴》, 《거부기》, 《산수》 등이다.

리징이 그린 《여름풍경》은 금니화로써 오늘도 국보로 인정

되고있다. 그림은 높은 산과 맑은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경치를 금분으로 그린것이다.

《산수》는 산수가 수려하고 초목이 청신한 아름다운 자연이 손바닥크기의 화면에 집중되어 있는 그림이다.

올려다보면 높고 푸른 련봉들이 련련하고 골마다 흘러내



《거부기》(22×15cm) 비단·금니



《공작새》 (22×15cm) 비단 · 금니

리는 물은 구슬처럼 아름답다. 금니의 미묘한 변화로 섬세하게 그린 이 작품은 조선화의 다양한 표현형식과 풍부한 묘사력을 보여주고있다.

리징의 이러한 새로운 화법은 그림에 여간만 능숙하지 않고서는 해낼수 없는것이였다.

리징의 그림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당시 어느한 사람은 그림을 보고 감탄하여 눈물까지 흘렸다고 한다.

리징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다.

비록 화폭에 현실을 외면한 제한성은 있으나 그는 전통적인 금니화형식으로 조선화를 계승발전시킨것으로 하여 조선봉건왕조시기 (1392년-1910년)의 회화유산을 풍부히 하고 우리 민족의 미술사에 무시할수 없는 공적을 쌓은 이름 있는 화가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실장 박사 부교수 강명석

상식

천 하 도

15세기중엽에 제작된 세계지도첩인 《천하도》는 현재까지 우리 나라에서 전해지고있는 가장 오랜 세계지도첩의 하나이다.

《천하여지도》라고도 하며 그 폭은 13폭으로 되어있다.

오래전부터 전해오던 세계지도와 우리 나라의 전도 및 지방도들을 하나로 묶어 1469년에 제작되였다.

그후 1511년에 《천하도》를 수정보충하여 《천하여지도》를 만들었다.

매개 도폭의 크기는 길이 27cm, 너비 33cm안팎이다.

《천하도》에는 동, 서, 남, 북의 네 방위와 세계의 육지와 바다의 배치, 주요한 강과 섬들 및 사막과 산림 등의 특성, 나라들의 이름과 주민들의 특성이 그림 등으로 표시되어있다. 바다와 강은 물색, 산은 땅색 혹은 진한 푸른색으로 표시하고 주요나라들의 수도와 우리 나라의 군급이상의 지명들은 기호와 함께 색으로 표시하였다.

이 지도첩은 당시의 동방 여러 나라의 지리와 지도 제작 및 판각수법, 조색수준을 리해하는데서 귀중한 자료로 되고있다.

* * *

조선의 단청

비단무늬

비단무늬는 모루무늬와 함께 조선의 단청무늬장식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비단무늬라는 이름은 무늬의 구성과 색채의 아름다움을 비단천에 비유하여 말한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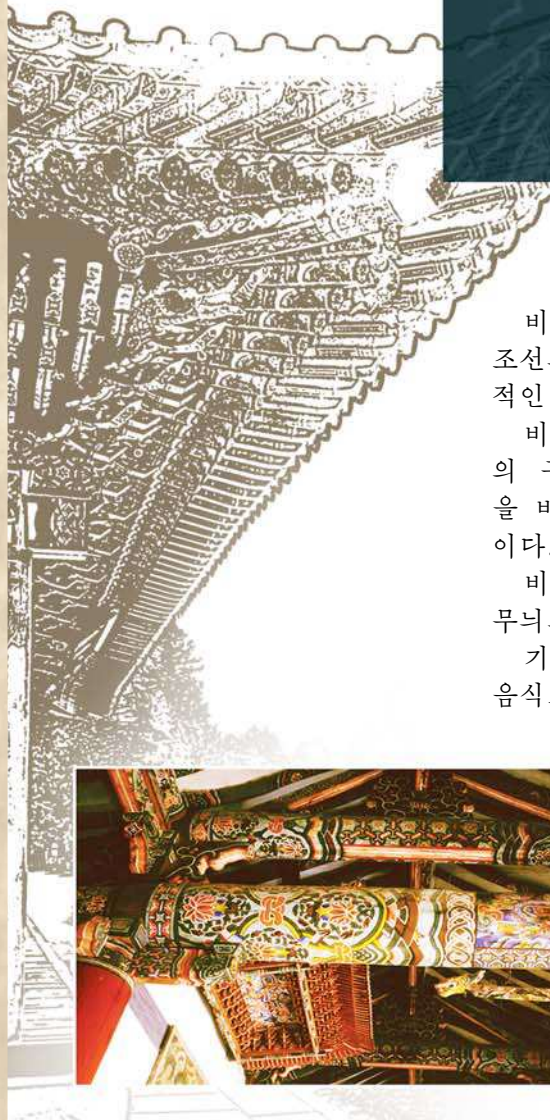
비단무늬는 크게 기하학적 무늬와 룡화무늬로 나눈다.

기하학적무늬는 3각, 4각접음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선조들

은 이 원리를 리용하여 수많은 종류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비단무늬를 만들어내였다.

룡화무늬는 기하학적무늬와는 달리 사색적인 성격을 띠며 색깔도 기하학적무늬의 화려함에 비하여 은근하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리 철



자혜사 대웅전 비단무늬의 일부



천주사 보광전 비단무늬의 일부



정양사 반야전 비단무늬의 일부



묘향산

- 향비로봉 -

향비로봉은 묘향산의 수많은 봉우리들 가운데서 제일 높은 봉우리이다. 상원동과 만폭동을 거쳐 이

향비로봉까지 올라가보아야 묘향산의 절경을 다 볼 수 있다. 향비로봉 등산길과 그 주위에는 폭포들로 이름난 천태동, 칠성

동계곡과 향비로봉을 등산하게 되는 첫 어구로 알려진 비로문휴식터, 3개의 아름다운 풍치를 감상할 수 있는 삼경터, 선조

들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건축물인 하비로암, 금강암 등 절경을 이루는 명소들이 매우 많다. 비로문휴식터는 고산풍경으로 절경을 이루는 향비로봉과 폭포미를 자랑하는 천태동, 칠성동계곡으로 등산하게 되는 첫 어구이다. 이곳은 천태동과 칠성동의 물이 한줄기로 합쳐 흘러내리는 계곡으로서 아름다운 계곡미를 드러내보인다. 각이한 돌들을 적시면서 흘러내리는 골개

수와 나무와 덩굴로 우거진 숲은 완성된 풍경화처럼 아름답게 보인다. 기묘하게 생긴 바위들 사이에는 칠성다리까지 놓여있어 골짜기 풍치를 더욱 돋구어준다. 이 다리와 또 하나의 금강터다리를 건르면 수림속에는 옛날 조선시대의 어느 물나라에서 근 300년 살아온 거북기가 절승경개로 알려진 묘향산구경을 왔다가 떠나기 아쉬워 돌로 굳어졌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거북바위》가

있다. 이곳을 지나면 맑은 물과 울창한 수림, 기묘한 바위 등 세 가지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삼경터가 있다. 답사숙영소앞에는 천태동, 칠성동, 향비로봉에 오르는 세 등산길이 갈라지는 곳에 있다고 하여 세길다리로 불리우는 다리가 있다. 천태동계곡에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 천태폭포이다. 이 폭포는 여러 갈래의 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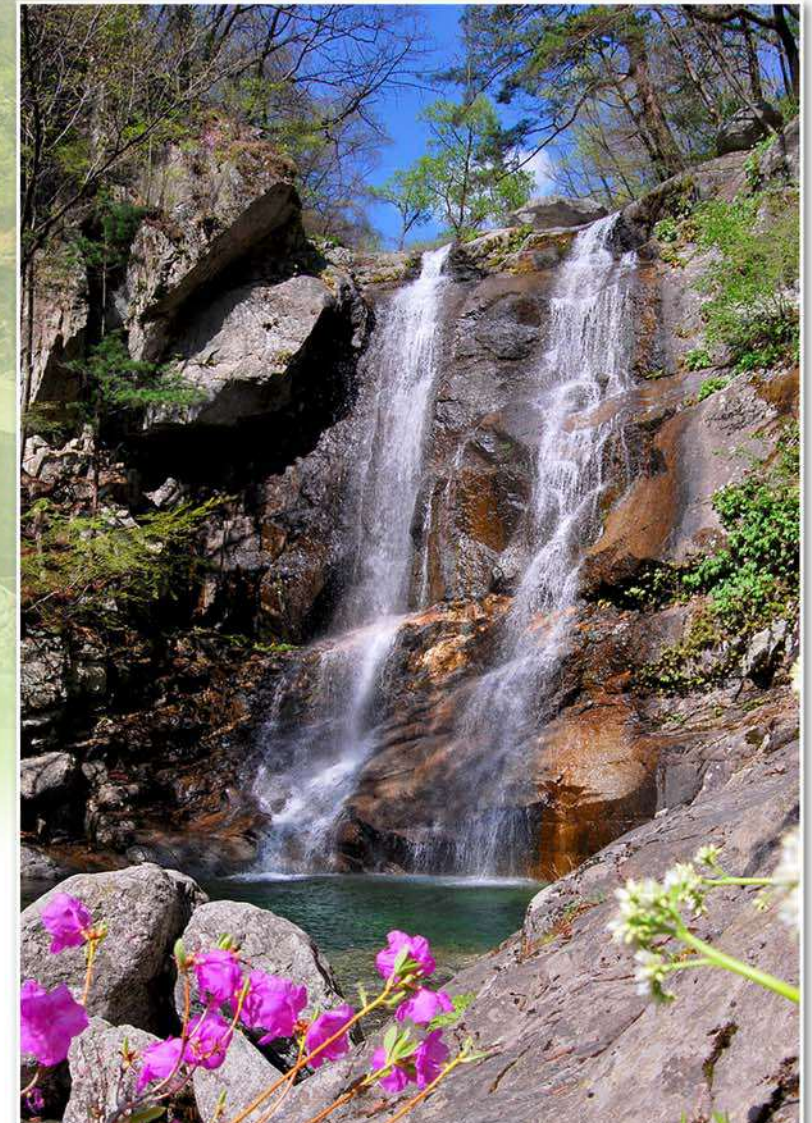
좁은 골짜기에서 모여든 물이 바위벼랑으로 떨어지는 폭포이다. 폭포밑에는 언제나 짙은 물안개가 서려있고 깊이 3m이상의 푸른 소가 있다.

천태동에 있는 이선남폭포도 장관을 이룬다.

22m의 높이에서 두줄기로 갈라져 떨어지는 이 폭포수는 경사진 바위를 따라 지쳐내리다가 바위턱에 걸려 앞으로 내뿜기도 하면서 밑으로 떨어진다. 폭포밑에는 폭포수에 의하여 패인 소가 있는데 여기에 찻던 물은



칠성봉(왼쪽)과 독수리바위(오른쪽)



사자폭포(우)와 사자소(오른쪽) 비단폭포우에 있다.

높이는 12.7m, 길이는 약 69m이다. 이 폭포는 계단처럼 생긴 여러개의 바위턱에 부딪쳐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쏟아질뿐 아니라 여러개의 물줄기로 갈라져 떨어진다. 어떤 물줄기는 가파로운 바위틈을 미끄러져내리고 어떤것은 흐르다가 바위에 부딪쳐 뿜어오르기도 하면서 떨어진다.

사자폭포의 밑에 큰 담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한여름이 되면 사자들이 자주 목욕을 하였다는 전설이 담겨져있다.



이선남폭포 천태동에 있다.

22m의 높이에서 두줄기로 갈라져 떨어지는 폭포수는 경사진 바위를 따라 떨어지다가 바위턱에 걸려 앞으로 내뿜기도 하면서 밑으로 떨어진다. 폭포밑에는 폭포수에 의하여 패인 깊이 3m나 되는 소가 있다.

암반우로 미끄러져내려 다시 그 밑에 형성된 두번째 소에 찾다가 계곡을 따라 흘러내린다. 장마철이면 두줄기의 폭포수는 합쳐져 바위벼랑 전체가 폭포수로 뒤덮이게 된다고 한다.

중비로는 하비로와 향비로봉 사이에 있다. 이곳의 해발높이는 1 200m정도이다. 여기에는 향비로봉등산자들을 위한 휴식각 백운정과 쉬임없이 솟아오르는 샘이 있다.

옛사람들은 이 샘을 사철 마르지 않는 샘이라 하여 《사철샘》이라 하였으며 또한 높은 곳에 있는 샘이라 하여 《천상약수》라고도 불려왔다. 그리

고 이 《천상약수》의 물맛을 보러 중비로에 오르고 구름재주를 보러 백운대에 올랐다고 한다.

하비로암에서 중비로까지는 키높은 나무들과 짙, 머루 등이 뒤엉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백운대는 산림속에 우뚝 솟은 바위로서 묘향산의 련봉들을 부감하는데 적합한 전망대이다. 예로부터 이 백운대에 오르면 주위의 측백나무에서 풍기는 향기가 안겨올뿐 아니라 상원동, 만폭동 등 묘향천을 끼고 이루어진 계곡들과 봉우리들을 거의다 볼수 있다.

특히 흰구름이 계곡을 따라 피어오를 때 묘향산의 수많은 계곡들은 구름밑에 사라져버리지만 구름우에 솟은 벼랑과 봉우리들은 한없이 높아보인다.

또한 백운대에서 단풍으로 물든 묘향산의 가을풍경을 한눈에 바라보면 매우 아름다운 절경이 안겨온다. 하기에 선조들은 백운대의 단풍구경이 가을 경치구경에서 으뜸이라고 하여 묘향산8경의 하나로 일러왔다.

원만봉은 향비로봉으로부터 서쪽으로 뻗은 산줄기에 솟아있다. 높이는 1 795m이다. 이곳을 지나 올라가면 해발 1 909m인 묘향산에서 제일 높은 향비



로봉에 당도하게 된다.

향비로봉에서 내려다보면 험산준령과 높고낮은 산밭들,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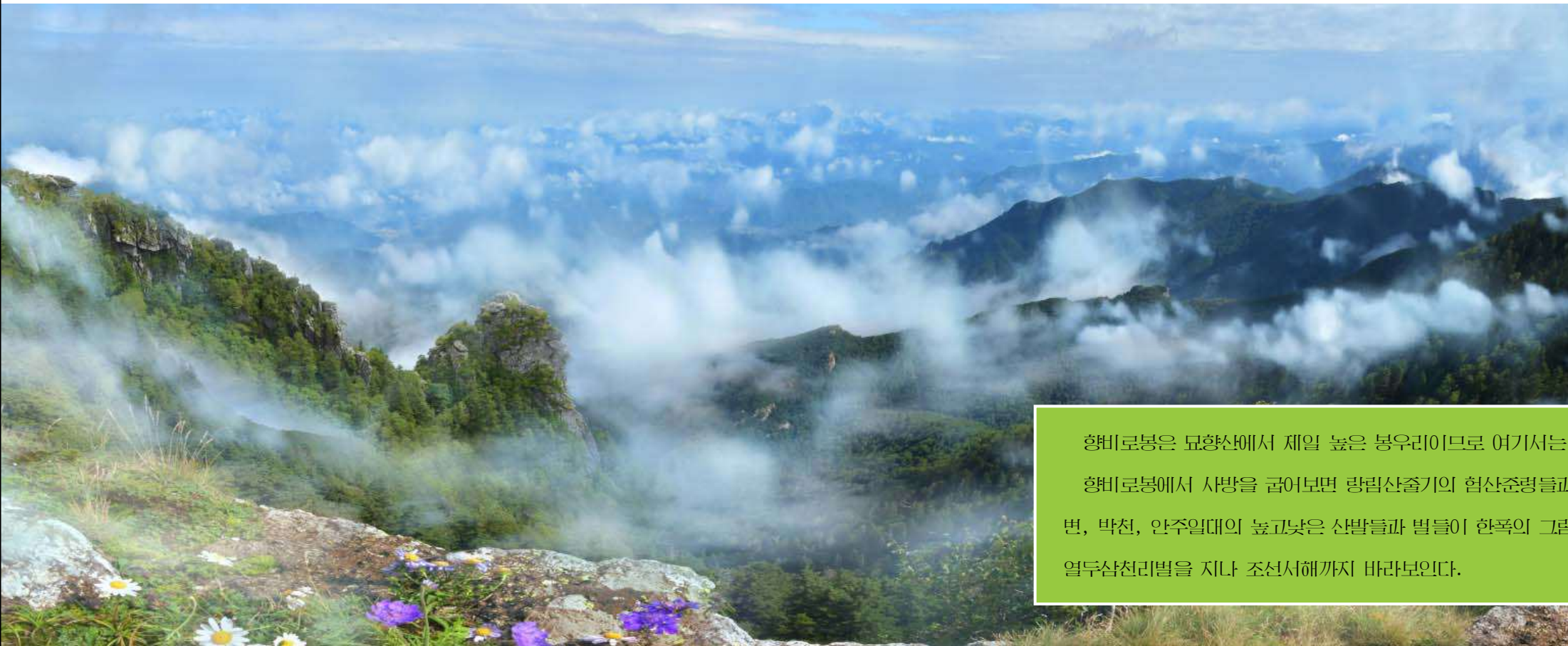
들은 물론 멀리로는 조선서해까지 바라보인다.

칠성동계곡에 들어서면 만경

폭포, 비단폭포, 사자폭포, 은실폭포, 사향못을 볼수 있다. 이채로운것은 만경폭포우에 비단폭포가 있고 비단폭포우에 사자폭포가 있으며 사자폭포우에 은실폭포와 사향못이 있는것이다. 매 폭포들은 자기 특색을 가지고있다.

칠성동계곡에는 이밖에도 그 길이가 75m나 되는 장대한 폭포인 칠성폭포, 웅장하고 기묘하게 생긴 기암인 설령대, 칠강협곡, 금강굴을 비롯한 명소들이 많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송대혁
공유일



향비로봉은 묘향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이므로 여기서는 조국의 산천을 부감할수 있다. 향비로봉에서 사방을 굽어보면 랑림산줄기의 험산준령들과 적유령산줄기의 련봉들 그리고 텨변, 박천, 안주일대의 높고낮은 산밭들과 별들이 한쪽의 그림처럼 펼쳐진다. 멀리로는 서해안의 열두삼천리벌을 지나 조선서해까지 바라보인다.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βph@star-co.net.kp

